

해외 6개국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현안과 발전방안 (국문)



CONTENTS

- 1 **서론: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연구 프로세스**
- 2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 3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 4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1. 서론: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연구 프로세스

I

서론: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연구 프로세스

▶ 아산나눔재단-STEP1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비교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 경제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생태계 역할 및 기여 증대

- ✓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의 창업의 역할 및 기여 강조
- ✓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각국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로서의 (혁신)창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노력



4차 산업혁명 및 디지털 전환 시대 신기술·신산업 혁신창업 활성화

-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시대 도래에 따른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국가 혁신경쟁력 강화 노력 필요
- ✓ 파괴적 혁신, 위험감수 등 창업기업의 높은 기업가정신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혁신성과를 만들어내기에 적합



해외 선진 창업생태계 특성 분석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진단

- ✓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핵심 역량 및 특성을 파악
- ✓ 한국의 창업생태계의 핵심 문제점 및 약점 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의 벤치마킹 시사점 도출

연구목적



1

• 국가별 창업생태계 분석 프레임워크와 부문별 지표개발 및 성과측정을 통한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정량적 비교분석

2

• 해외 주요국 창업정책 철학 및 시대적 변화와 발전과정에 대한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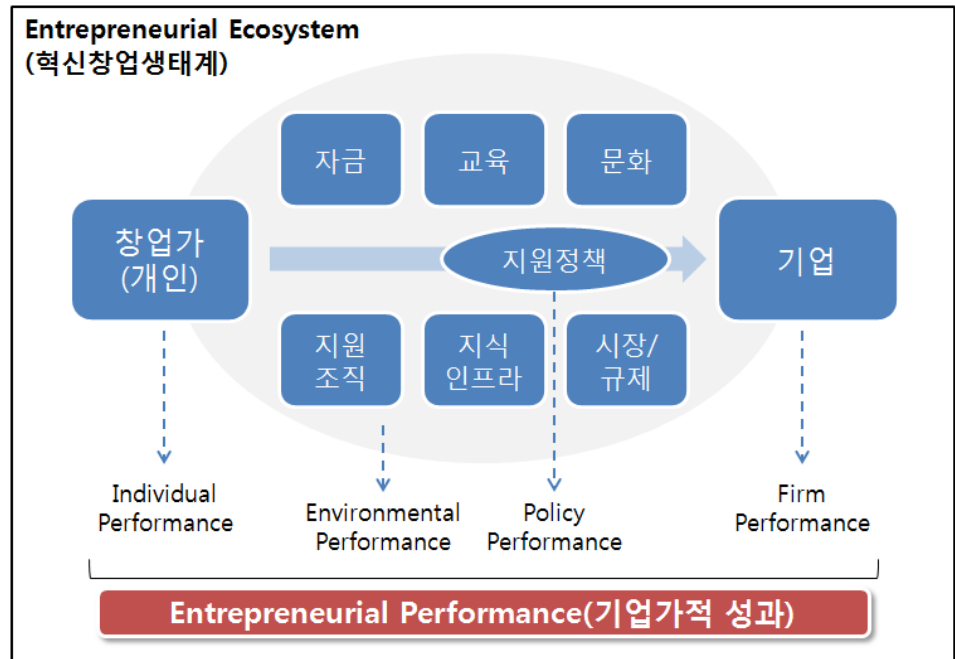
3

•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핵심 이슈 및 트렌드 도출을 통한 국가별 창업생태계 핵심 특성 및 역량 분석

4

•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 창업생태계(기업가적생태계) 개념



김영환 외(2020)의 혁신창업생태계의 구성요소 및 기업가적 성과의 개념

I

서론: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연구 프로세스

▶ 창업생태계 구성요소 – 분석 프레임워크

1. 기업가/창업

기업가정신/창업의향
창업 대중성(창업활동의 양)
창업활동의 질

2. 기업

기업생존율
고용성과
스케일업

3. 자금

벤처캐피탈 투자
엔젤투자
EXIT(IPO-M&A)

4. 지원조직/인프라

창업 지원조직의 양적 질적 수준
사업화/물리적 인프라

5. 기술/지식

기술개발 역량
4차 산업혁명 기술역량
기술이전/사업화

6. 교육/인력

교육 접근성
인력 숙련도
노동시장 유연성

7. 문화/인식

실패 두려움
사회적 인식

8. 정책/규제

정부 창업지원 정책
정부-민간 투자비중
창업규제 및 시장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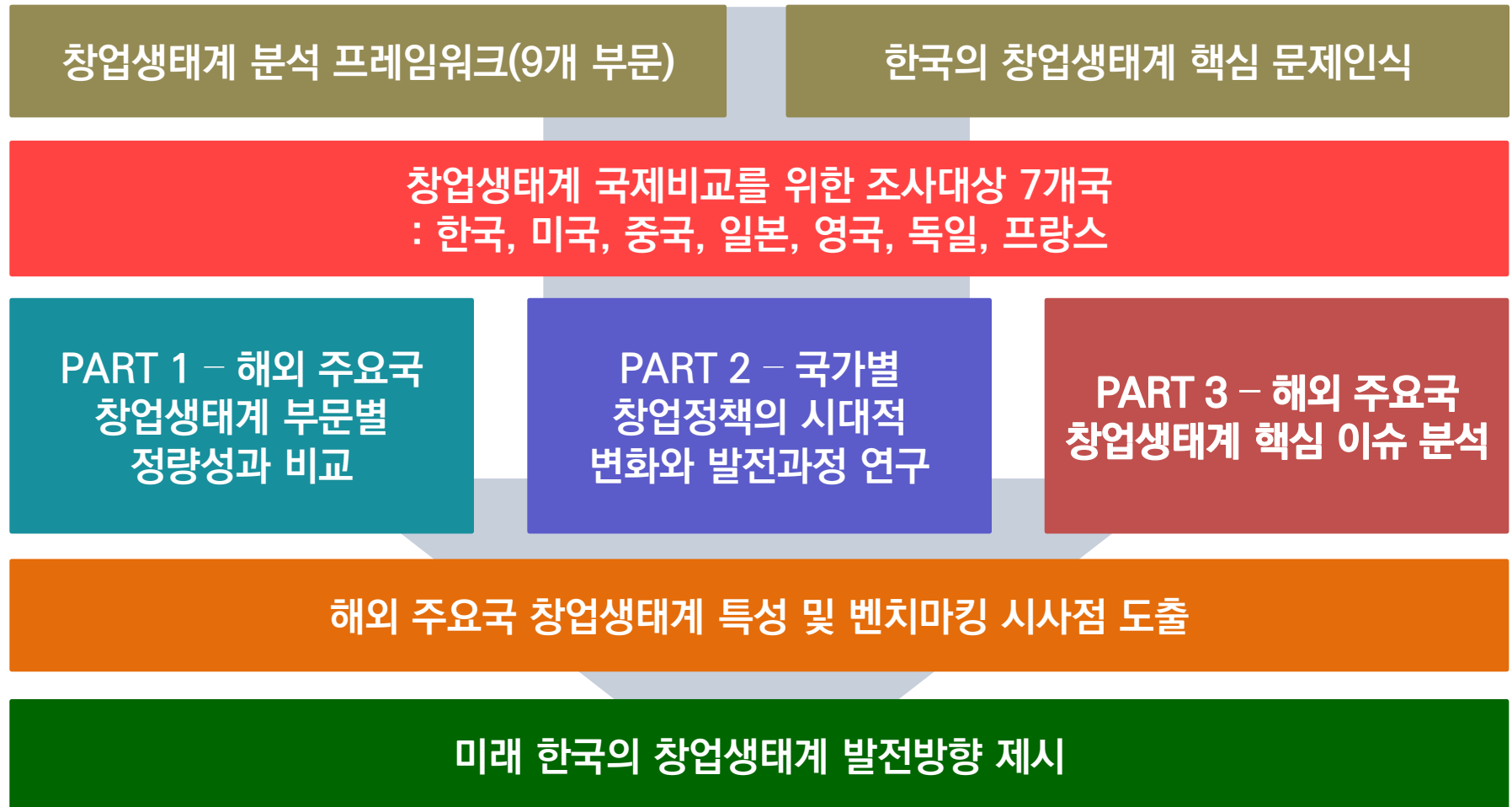
9. 글로벌화

해외시장 진출 및 시장-금융 세계화
외국인 창업환경(비자)



서론: 창업생태계의 개념 및 연구 프로세스

▶ 한국의 창업생태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제비교 연구의 전체 프로세스



2.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미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71.4

(1st/66.0)

Entrepreneurship

6.83

(1st/3.63)

Opportunity
/Necessity

22,910

(1st/5,539)

of Tech Scaleups

138.1 B\$

(1st/25.3B\$)

VC Investment

29.0%

(1st/34.4%)

Fear of Failure

☑ 일반 대중의 높은 기업가정신 수준 및 창업에 대한 준비성, 우수한 창업저변 및 사회문화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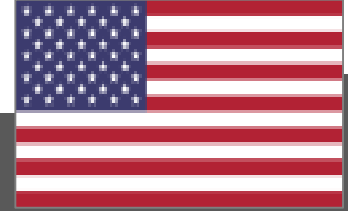
- 도전정신, 창의성, 위험감수 등에서의 높은 기업가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창업에 대한 기회 및 역량인식 수준이 높게 형성되어 있음
- 창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 우수하여 일반 대중의 창업에 대한 이질감이 거의 없으며, 창업활동에 대한 적극성이 높음
- 기회형·혁신형 창업 비중이 높으며, 독창적인 사업모델, 높은 투자유치, 글로벌 시장 점유를 바탕으로 유니콘·데카콘기업 성공사례가 많음

☑ 자금, 기술 및 지식, 교육 및 인력, 지원조직 및 인프라 등 창업지원생태계의 고른 발전 수준

- 창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인프라, 지원조직 등의 창업지원 환경이 모두 우수하여 창업활동에 있어 성공률과 성장가능성이 높음
- 일반 대중에게 높은 창업지원 환경의 보편성 및 접근성을 제공하며, 준비된 창업가, 우수한 지원환경, 성공적인 창업기업의 선순환이 돋보임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미국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체계화된 창업 인프라로 창업에 대한 접근성 및 보편성 우수

-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 창업지원 기관, 대학 등의 지원 연계성 우수
- 체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창업 인프라, 커뮤니티 등 접근성 높음

2 지역 특성을 살린 창업허브 구축(실리콘밸리 외 다수 도시)

-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등 글로벌 창업허브 다수 보유
- 실리콘밸리 외 뉴욕의 실리콘앨리 등 신 창업허브 도시 지속 성장

3 기업 성장단계별 다양한 민간 주도의 모험자본 시장 보유

- VC/PE 후기투자, 엔젤/AC/CF 등 초기투자자 명확한 역할 구분
- 정부는 기본적인 인프라 조성 및 관리/감독의 영역에 집중

4 혁신을 장려하는 정부의 창업기업 지원 정책

- SBIR/STTR 등은 단순 기업지원이 아닌 부처별 혁신수요를 충족
- 취약계층 경영기업의 경우에도 혁신활동에 대한 보편적 기회 제공

정책적 특징

☑ (오바마 행정부) 스타트업 중심의 혁신 경제 추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창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가속화
- A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Startup America Initiative(2011), Scaleup America Initiative(2014))
- JOBS (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 : 기업공시 및 회계감사 규제를 완화하여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용이성을 제고

☑ (트럼프 행정부) 친기업 규제 정책과 America First 강조

- 규제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친기업적 규제 법안 채택, 조세 개혁)
- Made in USA와 Buy American,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 미국산 우대, 수출 및 투자통제
- 실리콘밸리 기업에 대한 비판적 태도

☑ 연방-주-지역 차원의 유기적인 창업 정책-생태계 인프라 연계

- (연방정부) 목표-전략-정책의 명확한 기술, 미국 전역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문화 형성, 지역의 균형적 창업생태계 구축
- (주정부) 지역의 인프라, 특성, 강점을 살리는데 집중, 대학이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
- (지역사회) 연방 SBA, SBDC, 주정부 정책 실행기관, 지역사회 창업기관 제도와의 융합과 연계 노력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중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19.6%

(1st/13.1%)

Firm Birth Rate
(New/Exist)

120

(2nd/61)

Unicorns
(2020)

215.4B\$

(1st/41.6B\$)

Alternative Finance
(P2P/Crowdfunding)

41,508

(1st/19,488)

PCT Publication
(4th IR related)

49.1%

(1st/22.9%)

E-ship Education
Experience(Higher)

☑ 대중의 높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창업교육의 활성화로 창업활동이 활발히 일어남

- 전연령층의 기업가정신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창업가 및 창업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조성되어 있어 창업활동의 대중성이 높음

☑ 벤처·엔젤 투자 및 대체금융 등 우호적인 자금환경과 높은 시장잠재력을 기반으로 유니콘 및 데카콘기업 다수 탄생

- 해외 투자자 유치, 내부 투자 시장 성장으로 VC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엔젤투자 및 P2P 금융 등의 대체금융 규모가 압도적
- 미국 다음으로 테크스케일업 및 유니콘기업 수가 많으며,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기업가치를 가진 데카콘기업 수는 미국과 대등한 수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역량에 있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추월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 글로벌 창업생태계 선도

- 시청각 기술, 컴퓨터 기술,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테마인 디지털 전환 관련 기술역량이 뛰어남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중국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국가 핵심 기술혁신 전략과 창업정책과의 연계

- 중국제조2025, 스마트+, AI 발전계획, 신지젠(신형 인프라 정책) 등
- 상창(대중창업-만중혁신)을 계기로 혁신형·기회형 창업 활성화

2 산업특성을 감안한 광역 도시융합형 창업 특화지역 조성

- 중국 주요 도시의 혁신생태계 수준을 평가, 관리, 육성(3단계)
- 웨강아오다완취: 핵심 도시의 산업융합(예: AI) 및 국제 개방성

3 선도 빅테크 기업의 창업생태계 육성에의 기여

- BATJ 등 대형 빅테크 기업의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및 투자 주도
- 홍콩-상하이-선전 자국 첨단기술기업 주식시장으로의 EXIT 유도

4 대학의 혁신창업 인재 배출의 요람 역할

- 북경대, 칭화대 등 우수 대학의 엘리트 창업인재 배출
- 해외유학파 등 우수 인재의 고국 복귀 후 창업 유도('하이구이')

정책적 특징

☑ (2012~2019) 탐험형 기업가정신/기회형 창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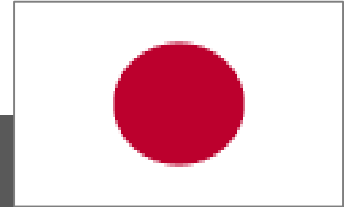
- 알리바바(아마존), 텐센트(페이스북), 바이두(구글)의 모방창업기를 지나 해외인재들의 '하이구이'로 인한 기회형 창업 본격 시작
- 상창(대중창업-만중혁신): 대중을 위한 창업공간(중창공간) 조성
- 중국제조2025: 전통산업의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강국 비전 실현
- 스마트+: ABC(AI, Big data, Cloud)를 비롯한 미래기술의 발전과 ICT의 효과적인 응용으로 사회 전면의 스마트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중국제조2025의 후속 개념)

☑ (2020~) 혁신형 기업가정신/혁신형 창업기

- 스스로 만들어내고 생각한 혁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는 이른바 '혁신형 창업가'의 전성시대
- 감세와 보조금 등의 정책 뿐만 아니라 신지젠(신형 인프라 정책: 데이터 경제와 산업 고도화)을 통해 쌍순환 경제 유인
- 미국과 기술패권 경쟁에 있어 하이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과학혁신판)'을 설치하는 등 자국의 자본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일본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81.7%	10.1%	490.4	4.72/9	69.8/100
(1st/48.8%)	(1st/4.7%)	(1st/235.7)	(2nd/4.46)	(2nd/65.3)
Survival Rate (5 years)	Job Creation (by Startups)	Patent Application (per 1M people)	R&D Transfer (Qualitative)	Labour Market Flexibility

☑ 기초 산업분야-4차 산업혁명 분야의 고른 기술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한 우수한 첨단 기술기업 성장 환경 보유

- 높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및 과학기술 전 분야의 높은 특허출원 비중으로 인한 기초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역량
- 미국-중국과 대등한 수준의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역량, 특히 전기 기계 및 구조, 제어, 광학, 반도체 등의 핵심 산업기술 분야 역량 우수

☑ 낮은 창업률 대비 높은 창업기업의 장단기 생존율 및 창업기업의 높은 고용창출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효과성이 높음

- 창업기업의 1년 단기 생존율 뿐 아니라 5년 장기 생존율이 타 국가 대비 압도적으로 높음
- 창업 자체는 활발하지 않으나 창업기업의 고용 수와 비중에서 타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며 고용의 질 및 고용환경도 우수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일본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4벤처붐의 도래

- 2010년 이후 창업기업 수, VC 투자 및 회수(IPO) 실적의 증가 추이
- ‘자금, 사람, 마인드’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일본 벤처생태계 변화 감지

2 총리 중심의 범부처 Top-down 형태의 창업정책 수립

-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핵심이 창업정책으로 생태계 근본 변화 유도
- Venture Challenge 2020: 범부처 정책(일본경제재생본부 주도)

3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대학발 벤처 활성화

- 대학발 벤처기업 설립 수, 투자유치 규모 등의 급격한 증가
- 산학협력 총괄 조직 신설, 창업가 교육, 대학-기업 인적교류 활성화

4 대기업-중소기업 간 연계 강화 및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 대기업 CVC 연합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로의 발전
- 대기업-벤처기업 연계 촉진계획,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혜택

정책적 특징

✓ 아베노믹스 창업 정책 방향 및 특징

- 1단계(창업을 더욱 가깝고 간단하게): 창업가 교육 및 인재 육성, 기업가정신의 계몽 활동
- 2단계(사업화 자금 및 노하우 제공): 기술자, IT, 로컬 비즈니스, 라이프사이언스, 생애현역 창업, 리스크머니 공급 전반
- 3단계(성장 기회 증대): 해외, 기존기업, 정부와의 연계

✓ Venture Challenge 2020(2016.4)

- 일본경제재생본부를 통해서 성장전략을 추진, Venture Challenge 2020에서 창업 정책 목표 제시
- 목표 설정
 - 1) 지역과 세계 사이의 연결 다리 역할을 하는 플랫폼의 구축
 - 2) 민간에 의한 자율적인 이노베이션·에코시스템의 구축
 - 3) 2022년까지 GDP 대비 VC 투자를 2배로 증대

✓ 2020년 성장전략에서 스타트업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도입 등
- 대기업과 스타트업 계약의 적정화
- 스핀오프를 포함한 사업재편의 촉진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영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24

(3rd/61)

Unicorns
(2020)

1,044

(2nd/1,090)

Coworking Space

91.5%

(1st/39.5%)

Private Investment
(Ratio)

89.2/100

(1st/73.7)

Financial
Globalization

20.0%

(1st/16.3%)

Foreign Self-
employed(Ratio)

☑ 민간 중심의 창업 자금 및 지원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기업의 생존역량 및 질적수준의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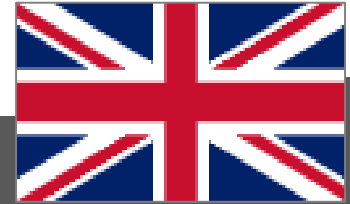
- 정부의 정책금융보다는 민간 중심의 창업기업 투자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의 독자적 생존능력 향상
- 민간 중심의 창업지원 조직 활성화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해 창업지원 생태계 허브로서의 역할 강화

☑ 창업인재 및 금융시스템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통한 창업생태계 도약 노력

- 혁신창업가 비자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창업인재 유치 정책으로 이민자 및 외국인 창업활동 활성화
- 해외 직접 투자 및 해외 자본 유입 등 금융 시장의 높은 개방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창업자본의 허브 역할 확대
- 다만, Brexit로 인한 글로벌 개방성 약화로 향후 영국 창업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영국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혁신기술 중심의 창업생태계 육성으로 경제체질 개선

-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 인프라 및 친기업 정책 환경 보유
- 런던은 유럽 최고 테크 스타트업 허브로, 기술기업과 인재 집합소

2 스케일업 및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 국가 창업정책 브랜드 Tech Nation의 단계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 스케일업 중심의 창업지원 정책의 초점 이동(Startup Institute)

3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 근간의 창업인재 및 해외투자 유치

-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창업비자(혁신가/스타트업 비자) 제도
- 글로벌 금융 허브 지위를 활용한 해외 투자자금의 창업생태계 유입

4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창업 허브 조성 노력

- 도시재생 관점의 클러스터 조성 - 지역밀착형 혁신생태계 구축
- 정부 정책-민간 프로그램 조화, 생태계 주체 네트워킹/피드백 체계

정책적 특징

☑ (2010~2012) 스타트업 지원기

- Tech City: 런던 북동부 창업생태계의 테크스타트업 지원 정책
- Startup Britain Initiative 발표: 대학 내 기업 설립 및 운영 등
- 초기기업 투자법(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 도입

☑ (2013~2016) 스케일업 지원기

- 소기업의 스케일업 위한 'Small Business: GREAT Ambition'
- 기업전용은행(BBB, British Business Bank) 출범
- 스케일업 육성전담기구 'Scale Up Institute' 설립

☑ (2017~) 민간/기업 주도의 창업생태계 활성화기

- Techcity UK와 TechNorth를 통합해 TechNation 설립
- 자금, 인력, 기술력/전문성을 갖춘 개방적인 생태계 구축
- 창업활동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연계성이 우수

☑ 클러스터 기반 육성과 포괄적 성과 로드맵 제시

- 테크시티 런던의 성공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클러스터 기반 육성책)
- 영국 정부는 우수한 창업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대학 연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독일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35,636	5.84 _{/9}	5.15 _{/7}	5.80 _{/9}	78.0 _{/100}
(1st/26,339)	(1st/4.99)	(2nd/4.89)	(1st/4.89)	(1st/63.9)
High-growth Company	Commercial/Regal Infra(Qualitative)	Digital Skills (Qualitative)	Gov. E-ship Program (Qualitative)	Trade Globalization

강력한 산업기술 경쟁력 및 인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고성장기업 중심의 창업기업 성장생태계 보유

- 제조, 기계 분야 등의 산업 응용 기술역량이 뛰어나며, 유럽 국가 중에서 GDP 대비 R&D 투자 비중도 가장 높은 편으로 산업기술 경쟁력이 우수
- 전연령층에서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 경험이 높으며, 기술인력 숙련도도 높아 창업에 필요한 역량 수준이 뛰어남
- 유니콘기업의 수는 적으나 고성장기업의 수는 많아 창업기업이 높은 시장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줌(창업활동의 효과성)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화 및 법적 지원 인프라 등 효과적인 창업지원 제도적 체계 수립

- 대학 창업지원 프로그램(EXIST), 공공 벤처캐피탈 투자(코페리온), 공공기술 이전(프라운호퍼) 등 정부 창업 프로그램의 질 및 신뢰도가 높음
- 기업활동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인프라가 체계적이어서 사업활동에 대한 애로나 불확실성이 낮으며, 창업 보조금 등 지원제도도 갖추어져 있음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독일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기업가정신 및 창업활동의 장기적 부진

- 2004년도를 정점으로 창업활동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
- 안정적 노동시장-창업실패 두려움의 효과가 혼재

2 첨단기술 기반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

- 정부, 대학, KfW, 프라운호퍼 등 전문기관별 창업지원 프로그램
- EXIST(Pre-seed)-HTGF(Seed)-Coparion(VC)(Growth)

3 창업실패에 대한 높은 사회적 안전망 및 창업문화 조성 노력

- 창업단계에서의 보조금 등 생계 지원 제도화
- '공세적 창업전략'을 통한 기업가정신 강화, 재도전 문화 확립 강조

4 스마트시티를 꿈꾸는 베를린의 창업허브 도시로의 부상

- 저렴한 임대료, 국제도시 명성, 다양한 인력의 집합소로서의 매력
- 주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 기업들의 생태계 조성 시너지

정책적 특징

✓ 하이테크 전략(Deutscher Bundestag, 2006~)

- 메르켈 집권 직후인 2006년부터 4년 단위로 하이테크 전략 수립
- 기술 분야만의 투자가 아니라 연구와 생산을 연결하고, 이를 위한 교육제도 확립 등 사회 전반의 계획
- 하이테크 전략 2025(BMBF, 2018) 중 창업관련 내용
 - 1) 개방형 혁신과 벤처문화 확립
 - 2) 응용분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지식의 구현을 도모
 - 3) 연방정부의 혁신동력 기능 강화
 - 4) 기업가정신 강화

✓ 대학-연구기관의 기업가정신 교육 및 기술 상용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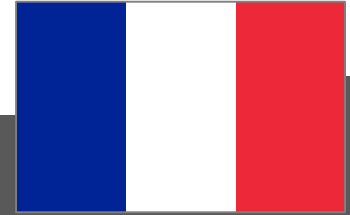
- EXIST 프로그램(1998~): 기업가정신 문화 형성, 창업보조금 지원, 기술이전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2018년부터 5단계 사업)
-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연구자 Spin-off 창업 지원
- 슈타인바이스대학의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상용화기술 지원

✓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생계 지원을 법으로 규정

- 독일 사회법은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생계지원(실업 급여, 재기 지원금) 뿐 아니라 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혜택도 가능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프랑스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36.9%	4.83 _{/9}	5.54 _{/9}	5.71 _{/9}	19.9%
(1st/30.2%)	(1st/4.46)	(1st/4.81)	(2nd/4.88)	(1st/13.9%)
Innovative Startup (Ratio)	R&D Transfer (Qualitative)	E-ship Education (Post-School/Qualitative)	Gov. Policy Support (Qualitative)	Global-oriented Startup(Ratio)

☑ 높은 기초기술 경쟁력 및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한 기반 혁신형-기회형 창업 활성화

- 저명한 기초기술 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성과에 대한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이 활발한 편
- 학령기 이후 기업가정신 및 창업 교육에 대한 대중 인지도 및 접근성이 높음
- 혁신형 창업비중 및 생계형 대비 개선주도 기회형 창업비중이 높아 창업의 질적 수준이 우수

☑ 정부 주도의 창업지원 정책 프로그램 및 인프라 조성 노력과 함께 창업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

- 정부 창업지원 정책 적절성 및 프로그램 수준과 같은 능동적 정책 뿐 아니라 세금 및 관료주의 등 수동적 정책에 있어서도 창업에 우호적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함께 창업인재 자국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창업비자 프로그램 기획·운영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프랑스의 창업생태계 특성

생태계 특성

1 혁신기술 기반 창업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 혁신주도 창업국가(Startup Nation)로의 창업정책 방향 설정
- La French Tech라는 국가 창업지원 정책 브랜드 확립

2 딥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육성계획 및 투자 확대

- 높은 기초기술 역량 바탕으로 딥테크 사업화/창업생태계 집중 육성
- 딥테크 선별, 이전, 투자, 보육, 공공조달의 사업화 전반을 지원

3 창업지원 거버넌스 확립 및 민관 협력 생태계 조성 노력

- 정책 담당 창구를 행정은 French Tech, 재정은 BPI France로 통합
- 공공(그랑제꼴, 국책연구기관)-민간(Ecole42, Station F) 간 협력

4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방성 및 네트워크 전략

-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한 거점 네트워크 조성
- Tech Ticket, Visa 등 창업인재 국내 생태계 유입 노력

정책적 특징

☑ (2009~2016) 통합기

- 올랑드 대통령 당선 후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정책 기조로 재무부 주도의 모두의 혁신, 개방, 성장, 공공 혁신을 강조
- BPI France, La French Tech 설립(거버넌스 확립)

☑ (2017~) 창업국가 실행기

- 세제 개편: 연간 약 50억 유로 규모의 혁신 관련 세금 공제
- 정부 지원: 2022년까지 15억 유로 규모, 인공지능 관련 연구 지원, 2019년 출자액 28억 유로
- 벤처캐피탈 투자: 영국 대비 53%(2007년) → 79%(2019년)

☑ La French Tech

- 스타트업, 투자자, 정책입안자, 공동체 설립자를 함께 불러 모으는 아주 독특한 운동으로 대통령비서실 주도로 디지털 장관 (secrétaire d'état en chargé du numérique)이 담당
- 임무: 프랑스를 우리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 세계적인 기업을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세계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
- 자국 내에서는 핵심 도시/지역별 거점을, 해외 주요 도시에는 글로벌 창업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연결된 생태계 강조

II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 한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Best Performance

26.5%

(1st/13.5%)

Entrepreneurial
Intention

1.83%

(1st/0.86%)

Firm Birth Rate
(New/Population)

0.029%

(1st/0.010%)

Angel Investment
(% of GDP)

4.2%

(1st/2.7%)

R&D Investment
(% of GDP)

461.2

(2nd/235.7)

Patent Application
(per 1M people)

☑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 및 투자시장 확대 노력으로 창업지원생태계의 외형적 성장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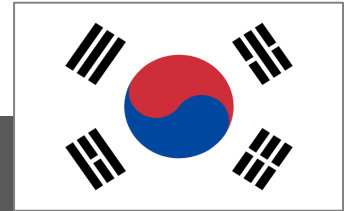
- 정부 및 공공주도의 창업지원 정책 및 세부 사업/프로그램이 다양하며 규모도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음
- 모태펀드 등 공공 주도의 창업기업 투자시장 확대 및 세제 혜택 등으로 VC 투자 및 엔젤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GDP 대비 투자비중 높음)
- 적극적 정부 주도의 창업정책으로 창업률(특히 인구 수 대비 창업기업 수)이 타 국가 대비 최고 수준을 기록

☑ 창업 활동의 적극성 대비 창업준비 역량이 다소 부족하며, 기술역량에 비해 사업화 역량에 한계를 노출

- 창업의향은 최고 수준이나 기업가정신 수준 및 기회/역량 인식은 다소 낮은 편이며, 실패 두려움 및 위험추구 성향, 사회적 인식 수준은 낮은 편
- 인구 수 대비 특허출원, GDP 대비 R&D 투자 등 연구개발 투입 성과는 우수하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의 효율성은 낮은 편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 한국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의 흐름

☑ '창업대중화'를 목표로 경제선진화 및 혁신경제 기조 하에 창업정책 다변화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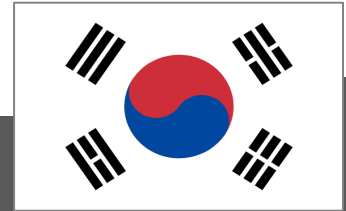
- 한국은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창업 촉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중소·벤처기업을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부처별, 기능별로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추진되면서 창업지원사업도 확대되어 오고 있음
- 한국의 창업정책은 '창업대중화'에 핵심을 두고 있음
 - 시대적으로 2000년대 경제 선진화 및 2010년대 혁신경제 추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창업정책의 방향은 ① 창업 인프라 조성(이명박 정부) → ②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창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박근혜 정부) → ③ 창업국가 건설(문재인 정부)로 이어져 창업의 양적 확산에 기여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주요 창업 대책

2017	2018	2019	2020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 투자중심 생태계 • 기술창업 활성화 • 재도전 인프라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 • 인프라 구축 • 문화적 저변 확산 • 제조창업 기반 마련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 및 신산업 육성과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 • 규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한국판 뉴딜 정책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 목표 • 2025년까지 25개 핵심 프로젝트에 76조원 투자하여 총 55만개 일자리를 창출 • 3대 뉴딜 전략 - 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 - 지역균형뉴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혁신창업 친화 •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민간선도형 • 개방형 • 참여공유형	제2벤처붐 확산전략 • 신산업 발굴 및 기술혁신창업 지원 • 민간 투자 활성화 • 스케일업/글로벌화 • 창업거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 • 엔젤투자 활성화 • 유니콘기업 육성 • 실험실 창업 촉진		



한국 및 해외 주요국의 창업생태계 현황 및 특성



▶ 한국의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의 한계

☑ '창업의 대중화' 는 실현하였으나, 창업내실화 및 고도화는 여전한 숙제

-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지난 20여 년간 국내 벤처 기업 수는 100배 이상 증가하였고, 벤처캐피털 투자도 OECD 국가 중 4위에 이르는 등 창업은 꾸준히 성장 중
- 그러나 기술기반의 기회형 창업보다는 생계유지 목적의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혁신을 표방하는 신규 창업의 비중이 전체의 1% 미만으로 개선의 필요함

☑ 정부 창업지원 예산의 78% 정도가 예비 · 초기 창업단계에 집중

- 다양한 창업지원 사업이 창업초기단계의 예비 및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죽음의 계곡'의 위기를 겪는 3~7년차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기회가 매우 한정적임
- 창업 경쟁력을 갖춘 주요 선진 국가들은 중기(3~7년)를 중심으로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반해, 국내는 초기(3년 이내)와 후기(7년 초과)에 집중되어 있음

☑ SW 기반, 아이디어 중심의 '가벼운 창업' 증가,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생존 위협은 계속 증가

- ICT의 발달, 개방형 생태계 성장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SW 기반, 아이디어 중심의 '가벼운 창업'이 급성장하고 있음
- 국내 창업기업들은 차별화 요소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사 서비스의 난립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Mckinsey & Company, 2015)
- 반면, 생존율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고학력 전문 창업, 첨단기술 분야 창업은 매우 저조한 상황

☑ 부처별 · 지자체별 유사 지원사업의 증가 및 창업지원의 혼란 가중

- 부처별, 지자체별로 유사한 지원 사업이 증가하고, 부처 간 역할 역시 명확치 않아 창업 지원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수년간 계속되었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상의 불편은 여전히 존재

3.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 한국의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

- 0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 02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로 인한 민간 모험자본의 역할 미흡
- 03 선도 창업기업의 EXIT 생태계 부재로 인한 선순환 한계
- 04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화 전략 및 체계적 지원 인프라 부재
- 05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 전략 부재
- 06 공공기술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과 산-학 협력 체계 미비
- 07 기업가정신 함양 및 우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미비
- 08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 안전망 부족
- 09 창업·사업활동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 및 진입장벽
- 10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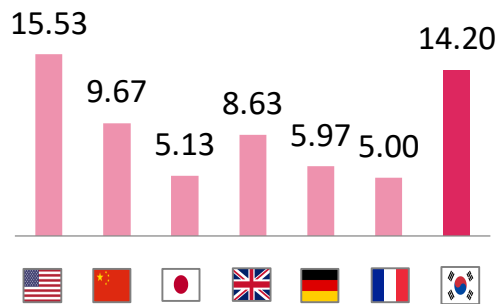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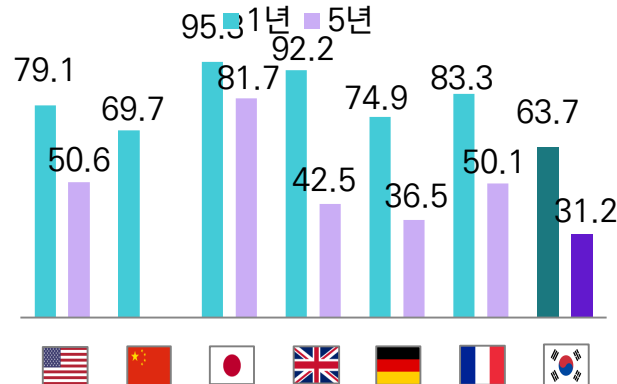
문제/이슈 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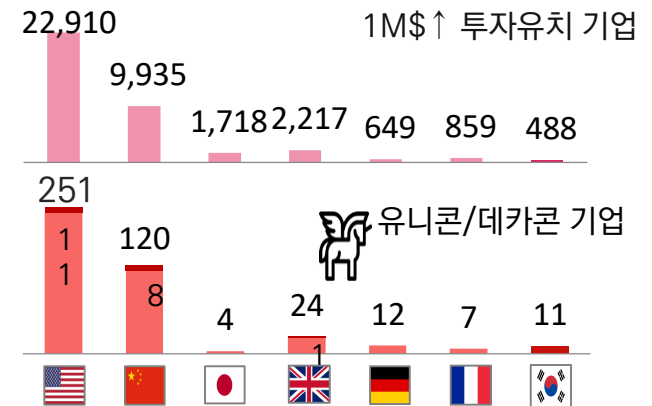
TEA(창업활동) 지수



창업기업 생존율



테크스케일업/유니콘기업 수



현황 진단

☑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스케일업) 지원 체계 및 프로그램 부재

- 기술기업의 혁신경쟁력 및 성장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어 성장 단계별로 필요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 체계 부재
-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비전 및 목표, 스케일업 전담 지원 기관의 부재

☑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공공 조달시장 등 초기 유효시장 창출 노력 부족

- 미국의 SBIR을 본따 KOSBIR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혁신 지원 목표가 모호하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 부재
- 여성기업, 낙후지역 기업, 경제사회적 약자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공공구매 제도 부재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사례 01 Tech Nation & Scaleup Institute (UK)

TECH NATION

Early Stage

FOUNDERS' NETWORK

- Peer-to-peer network for tech startup founders

RISING STARS

Ver 3.0

- Competition for Innovative, early-stage tech companies

LIBRA

Ver 1.0

- Supporting underrepresented tech leaders(e.g. Black Founders)

**Seed~Pre Series A,
Sales ~ £1.5M**

Mid Stage

UPSCALE Ver 7.0

- Coaching and mentoring from over 20 scale coaches
- Founder circles – designated groups of 8–10 Upscale founders
- Middle manager training – Fast tracking future leaders or upskilling managers

**Series A,
Sales £1.5M~£5M**

Late Stage

FUTURE FIFTY Ver 10.0

- Recognition as UK's most successful digital biz.
- Peer-to-peer learning and networks
- Masterclass workshops led by global experts

**Series B+,
Sales £5M+,
50% annual growth**

특징

- 성장단계별 기술창업가들의 네트워크와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상호학습(Peer-to-peer)의 기회 제공
- 스케일업 전문 코치 및 멘토를 활용한 효과적인 스케일업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사례 01 Tech Nation & Scaleup Institute (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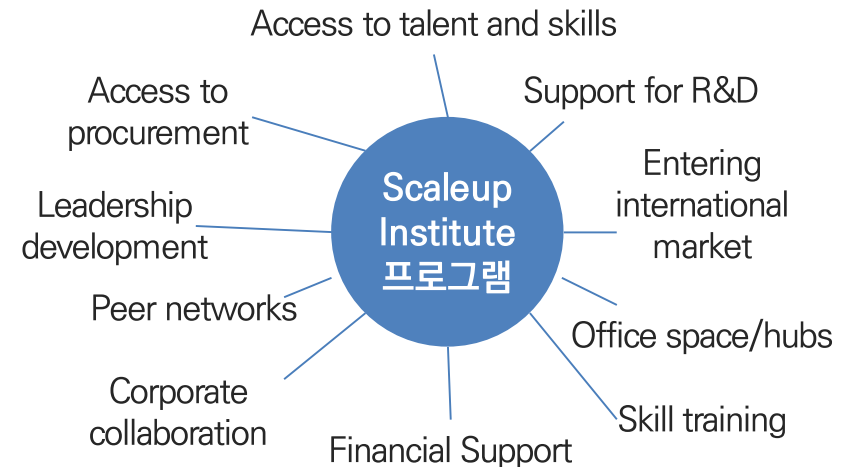
Scaleup Institute

☑ 세계 최초의 스케일업 전담 지원 기관

- 2014년 설립된 민간 비영리 기관
- 효과적인 스케일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철학과 목표 정립 (2034년까지 15만개의 일자리 창출, 2,250억 파운드의 GDP 순증 목표)
- 영국 정부는 2.5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여 기업-전문가-투자자 간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투자유치를 돕는 플랫폼 운영

☑ 스케일업 생태계 현황 리뷰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 영국의 스케일업 현황 조사 Scale-up Index, Scale-up Review 발간
- 영국 내 스케일업 프로그램에 대한 포털 형태의 정보 제공(200개 이상)



시사점



☑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스케일업 수요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 지원 프로그램 구축

- 성장단계별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생태계 전문가-동료 및 선배 창업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초점

☑ 스케일업 지원에 대한 명확한 철학 및 목표 설정과 함께 스케일업 전문인력 및 조직 구축 등 역량 강화

- 스케일업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스케일업 전담 연구-확산-지원 조직 체계 및 전문가 육성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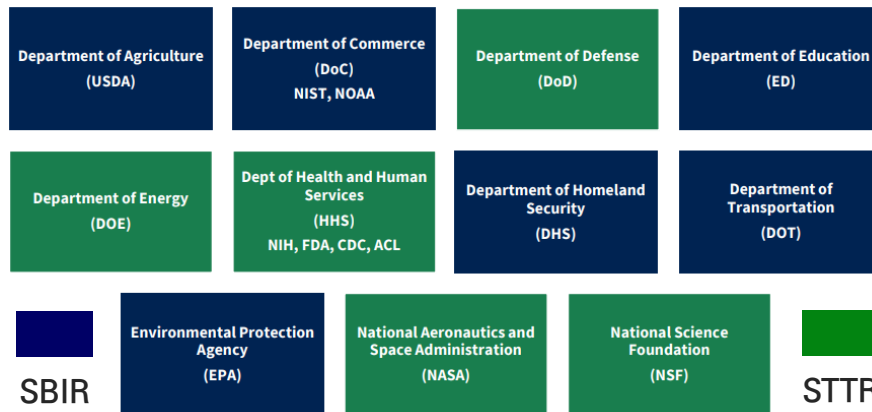
02

SBIR/STTR & Small Business Procurement (USA)

SBIR/STTR

☑ SBIR/STTR의 정책 목표 및 개념

- 목표: 1) 국가(연방) 차원의 명확한 R&D 수요 충족, 2) 기술혁신(technological innovation) 촉진, 3) 국가(연방) R&D 투자를 통해 탄생한 혁신에 대한 민간주도의 상업화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SBIR):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대외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부처(agencies)에 대해 3.2% 이상의 예산을 SBIR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강제(연간 32억 달러 상한의 최소 집행금액)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STTR):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대외 R&D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부처(agencies)에 대해 0.45% 이상의 예산을 STTR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강제(연간 4.5억 달러 상한의 최소 집행금액)



Participating agencies(SBA, 2020)



SBIR/STTR three phase process(SBA,2020)

특징

- SBA의 총괄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부처별 자율적 수행 체계
- 부처별 핵심 필요기술 및 혁신성과에 대한 수요기반 정책
- 개념증명-R&D-상업화 3단계 운영(3단계는 공공조달 연계)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 창업의 양적 성장에 비해 낮은 기업 생존율 및 스케일업 성과



사례

02

SBIR/STTR & Small Business Procurement (USA)

SBA Procurement

☒ 중소기업청은 연방 정부의 부처와 공공기관의 전체 조달 중 중소기업 계약 비중 목표치를 제시, 달성 현황을 추적/보고

- 2020년 중소기업 공공조달 계약 비중을 전체의 20%에서 23%로 확대
- 특히 약자 중소기업, 여성 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퇴역상이군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중을 달성할 것을 제시

구분	일반 중소기업	8(a)기업개발/약자중소기업	여성중소기업	낙후지역중소기업	퇴역상이군인중소기업
비중	23%	5%	5%	3%	3%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혁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제품/서비스 우대 계약 제도 시행

- 조달청: 절차개선(Make It Easier, MIE)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개발 IT 관련 기술의 신속 구매를 도모
- 국방부: 국방 혁신 단위 실험(Defense Innovation Unit Experimental) 및 로봇 공학 신속 트랙(Robotics Fast Track) 프로그램 시행
- NASA: '비 배제적이고 로열티 지급 의무가 없는(Non-Exclusive, Royalty-Free, NERF)'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게 양도가능한 제도
- 에너지부: 소기업과의 계약 단계를 간소화하는 '소기업 바우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가 발주하는 연구개발 속도를 가속화

시사점



☒ 단순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아닌 국가/부처 핵심 필요기술에 대한 기업 혁신역량 강화 목적의 조달 정책

- 부처별 명확한 수요 기반 기술혁신 정책기획에 따른 체계적인 중소기업 조달체계 및 프로세스 구축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노력 필요

- 여성, 지역,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대한 세심한 지원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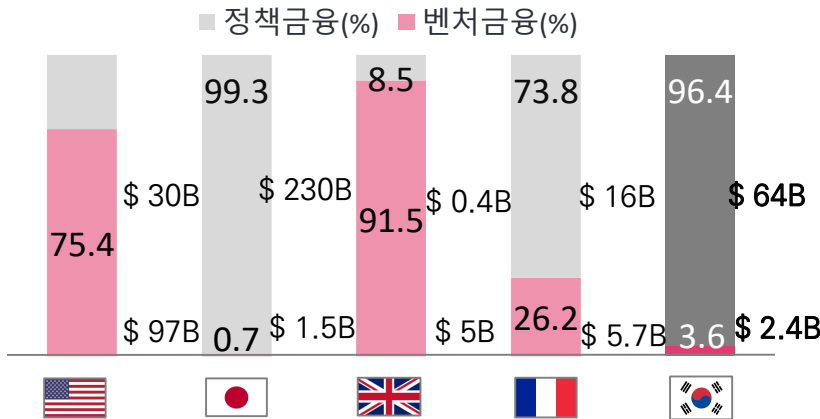
III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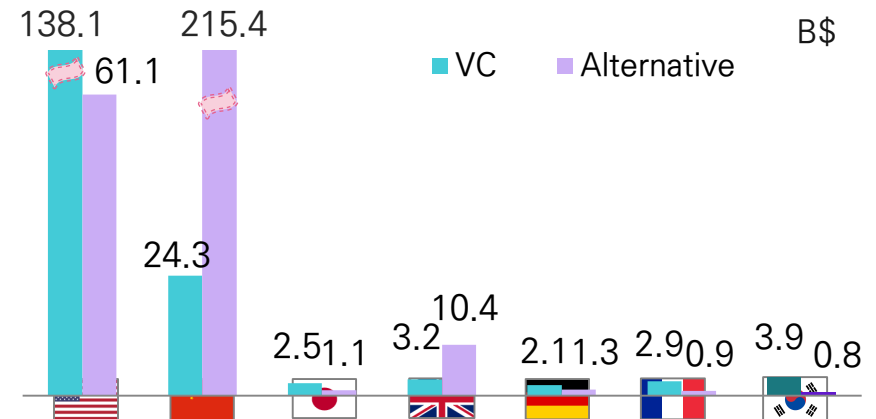
문제/이슈 2: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로 인한 민간 모험자본의 역할 미흡

관련 지표

정부-민간의 자금조달 비중



벤처캐피탈 vs 대체금융 규모



현황 진단

☑ 정부 모태펀드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자생적 민간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에 한계

- 정부 모태펀드의 매칭 형태의 안정적인 민간 VC 투자 성향으로 위험투자에 대한 역량과 경험이 부족
- 선진국에 비해 작은 VC 펀드 투자 규모의 한계로 선도/고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후기 투자 비중이 낮은 편

☑ 최근 엔젤투자 등의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P2P 금융/크라우드펀딩 등의 대체금융 생태계 미성숙

- 최근 벤처캐피탈 투자와 함께 세제 혜택 등에 힘입어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엔젤 투자의 규모가 크게 증가
- 다만 민간 금융생태계의 다양성 부족, 관련 금융규제 장벽 등으로 미국, 중국, 영국 등에 비해 대체금융 생태계 규모가 작음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2: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로 인한 민간 모험자본의 역할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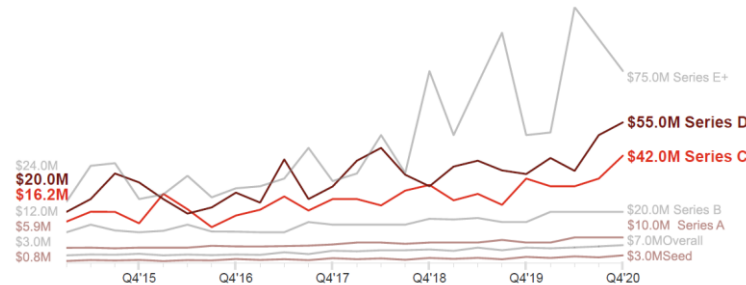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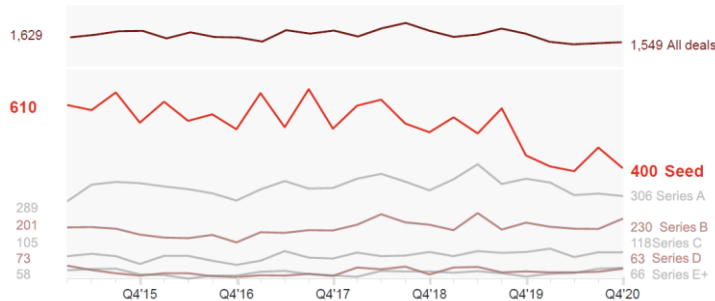
사례

01

창업 성장단계별 민간 투자생태계 구축 및 투자규모 대형화 (USA)

미국의 선순환 벤처투자생태계의 핵심 배경은 지속적인 민간 투자 연계 및 후속투자 활성화

- 창업성장단계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연계가 원활: 정부는 인프라 조성, 엔젤 및 AC는 시드/초기단계 투자, VC는 확장/후기단계 투자 등
- VC투자가 확장/후기단계(시리즈C/D)로 옮겨가면서, 엔젤 및 AC가 초기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원으로 부상 (Y-Combinator, AngelPad, StartX 등 AC 투자성공사례 다수 배출(AirBnB, DropBox 등))
- 건당 \$1억 이상의 대형 메가 투자는 매년 증가하여 2020년 318건(전체 투자 규모의 49%)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



창업 성장단계별
VC 투자 건수(좌)
및 건당 투자 규모(우)

PwC/CB Insight(2020),
MoenyTree Report Q4 2020

투자단계별 투자유치 스타트업 수 및 후속 투자유치 비중 비교 (한국 vs. 미국)

단계	시드·엔젤	시리즈A	시리즈B	시리즈C	시리즈D	시리즈E+	Exit	유니콘
한국	138개	68개 (49.3%)	48개 (70.6%)	7개 (14.5%)	2개 (28.6%)	0개 (0%)	8개 (5.8%)	2개 (1.4%)
미국	8,667개	2,300개 (26.5%)	958개 (41.7%)	316개 (33%)	81개 (25.6%)	17개 (21%)	1,064개 (12.3%)	30개 (0.3%)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2: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투자생태계로 인한 민간 모험자본의 역할 미흡



사례

02

초기 위험자본 투자시장의 새로운 그룹 – Capital Entrepreneurs (Global)

☑ 새로운 Capital Entrepreneurs의 등장

- 은행융자와 벤처투자의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투자자 그룹
- 창업자 및 기업인들의 자금접근 시 장애요소들을 줄이기 위한 진보된 새로운 체계
- 보다 융통적인 자금형성 모델을 구축하고, 자본 및 부채구조 내에서 혁신을 추구
- 미국: VC 10.7%, 액셀러레이터 4.7%, 크라우드펀딩 6.6%, 엔젤 9.3%
- 영국: 크라우드펀딩 시장 비중이 13.5%로 VC보다도 높게 나타남
- 중국: 금융(개인신용대출 등) 시장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

☑ 초기 자본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

- Capital Infrastructure: 다양한 투자수단과 중개금융기관은 자금센터와 실제 기업인들이 필요한 자금과의 갭을 연결하는 중간다리 역할
- People Infrastructure: 민간자본 혜택을 보지 못하는 83%에 달하는 기업인에게 자금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는 Capital Entrepreneurs
- Information Infrastructure: 진보된 데이터와 기술은 많은 기업인에게 자본의 흐름을 가속화시켜 줄 인프라와 기준을 구축
- Knowledge Infrastructure: 자금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 습득 및 자본제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의 습득
- Policy Infrastructure: 정책입안자들의 기업인들을 위한 자본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업인과 Capital Entrepreneur들의 의견을 반영

시사점



☑ 초기부터 후기까지 기업 성장단계별 적절한 위험자본의 연계와 후속투자 환경 조성 필요

- 초기에 비해 부족한 후기 투자시장의 규모 확대와 단계별 투자시장 및 투자자 간 연계 강화

☑ 스타트업 초기 위험자본 투자시장 확대를 위한 Capital Entrepreneur 생태계 조성

- 모태펀드 등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고 VC 외 민간 자본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체금융 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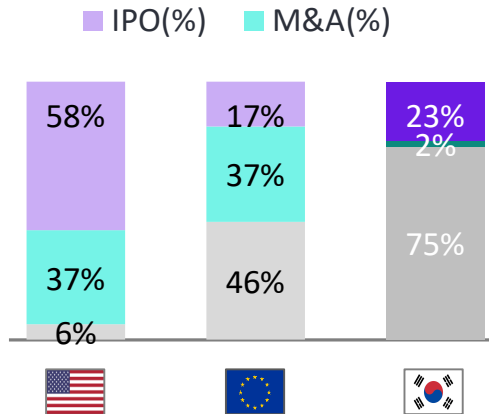
III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3: 선도 창업기업의 EXIT 생태계 부재로 인한 선순환 한계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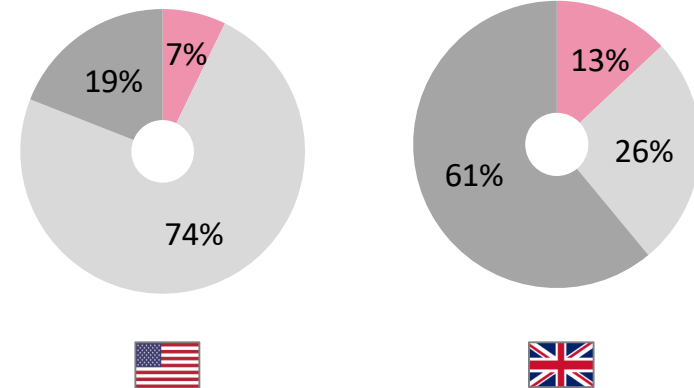
VC 회수금액 중 IPO/M&A 비중



전체 VC 회수 금액

	\$ 257.40 B
	\$ 3.01 B
	\$ 1.22 B

VC 회수건수 중 IPO/M&A 비중



현황 진단

☑ M&A에 비해 IPO에 집중된 창업기업 EXIT 생태계

- 미국 및 중국에 비해 성장단계 상 후기 투자/회수 시장 규모가 작아 큰 규모의 M&A가 성사되기 어려운 구조
- IPO에 걸리는 시간도 창업 후 평균 10년 이상으로 벤처투자 조합의 운용기간보다도 길기 때문에 가능성이 극히 낮음

☑ 대기업 및 혁신 선도기업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미흡

- 기업의 혁신에 대한 인식 수준에 비해 오픈이노베이션 및 기업형 벤처투자를 통한 스타트업과의 협력 수준은 낮은 편
- 대기업 CVC 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규제부담 및 부정적 인식 개선 필요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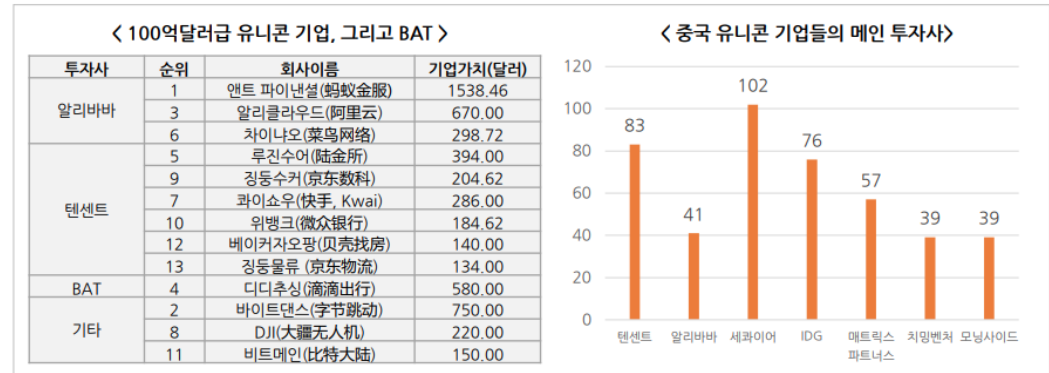
문제/이슈 3: 선도 창업기업의 EXIT 생태계 부재로 인한 선순환 한계

사례 01 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CVC 투자 (China & Japan)

China

☑ 중국의 유니콘기업 성장의 핵심은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투자생태계

- 중국 유니콘 기업 중 과반 이상(52%)이 BATJ의 투자 획득
-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기반기술/서비스 개방 등 전방위적인 개방체제 및 강력한 O2O 서비스 생태계 구축
- 인큐베이팅 및 액셀러레이팅 등 혁신 플랫폼 구축, 인력 양성, 자금 투자 등을 통해 자체적 창업생태계 조성
-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최근 몇 년 간 5~6천억 위안의 투자 및 인수합병을 통해 각각 10조 위안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
- 텐센트와 알리바바는 전 세계 10대 유니콘 투자기관에 선정(FANG은 순위권 밖)(후론 2020 글로벌 유니콘)



플래텀(2020.04)

☑ 텐센트의 CVC 투자 현황 및 성과

- 텐센트는 중국에서 가장 활동적인 CVC 중 하나로 전 세계 741개 기업에 투자(20.7 기준)
- 게임, 엔터테인먼트,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22%가 문화 및 미디어 분야 기업
- 텐센트가 투자한 800여개 기업 중 70개 이상이 상장하였고, 160개사가 유니콘으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징둥, 메이완, 디디추싱, 루팍스, 터우티아오 등은 텐센트의 지원 하에 업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하여 강력한 O2O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
- 베이징, 선전, 상하이, 청두 등 중국의 29개 도시에 38개의 텐센트 중창공간(腾讯众创空间)을 세우고 개방형 '인터넷+' 창업 혁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3: 선도 창업기업의 EXIT 생태계 부재로 인한 선순환 한계



사례

01

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의 CVC 투자 (China & Japan)

Japan

일본의 제4차 벤처붐을 견인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는 스타트업과 연계한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 기존의 개별 VC 투자에서 2010년 중반 이후 대기업 CVC 참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함
- 2018년에는 16개의 신규 CVC가 설립되는 등 CVC 중 90%가 2010년 이후에 설립되었음
- CVC 투자 금액은 2019년 215억엔으로 2011년 대비 11.3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동 기간 5.3%에서 9.3%로 증가
- 2018년 12월, 독립계 벤처캐피털기업 글로벌브레인이 오픈 이노베이션 추진에 적극적인 대기업들을 모아 'αTrackers'를 설립
-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도 CVC 활성화에 기여
(민간기업이 10년 미만 스타트업에 1억엔 이상 투자할 경우 출자액의 25%를 소득액에서 공제)



일본 벤처캐피탈협회 회원 성격의 변화
(일본벤처캐피탈협회, 2019)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3: 선도 창업기업의 EXIT 생태계 부재로 인한 선순환 한계



사례

02

커창반(科創板·과학혁신판) 및 창예반(創業板(창업판)·차이넥스트) (China)

☑ 중국판 나스닥 ‘커창반(科創板·과학혁신판)’

- 정보기술, 인공지능,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등의 첨단기술 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2019년 7월 25개 종목으로 출범
- 중국 기술기업들이 홍콩,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관행을 끊고 자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2018년 11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지시로 추진됨

☑ 원조 차스닥 ‘창예반(科創板·과학혁신판)’

- 2009년 10월 선전증권거래소에 설치된 중소기업주 전문 거래 시장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에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함

☑ 커창반 및 창예반의 특징 및 성과

- 커창반은 기술 잠재력만으로 적자기업도 상장 가능, 상장심사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인 것이 특징(창예반도 2020.8부터 등록제로 전환)
- 나스닥처럼 창업자의 차등의결권 행사 가능, 상장 5거래일 간 가격제한폭 폐지, 개별종목 공매도 허용 등 기업인-투자자 친화제도 도입
- 커창반은 300여개, 창예반은 900여개 사 이상이 상장, R&D 투입(집중도 8.8%/4.5%) 및 순이익증가율(59.1%/43%)이 최고 수준을 기록
- 커창반 50, 창예반 50과 같은 시장 대표 종목으로 구성된 인덱스가 출범하면서 중국 최고 혁신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접근성 향상
- 다만, 애플그룹의 커창반 상장 좌절을 계기로 커창반의 첨단기술 기업 요건이 강화되면서 핀테크 기업 등의 상장이 어려워짐

시사점



☑ 대기업 및 빅테크 기업 주도의 혁신창업 투자보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 CVC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혁신 스타트업과의 개방형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우수 기술혁신 기업 EXIT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국 자본/주식시장의 전략적 육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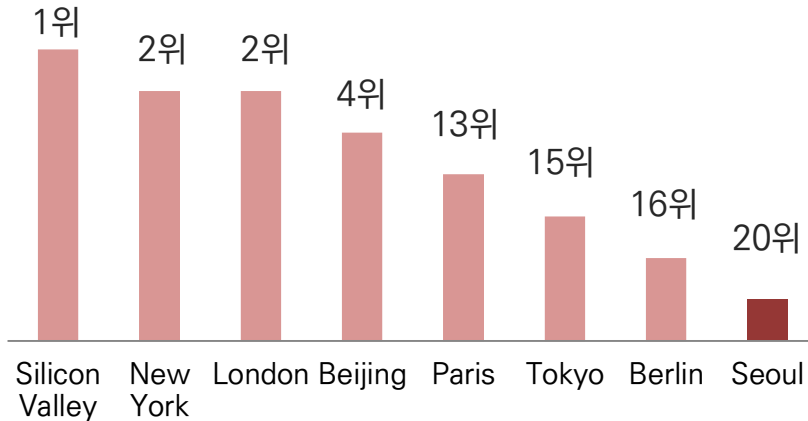
- 과학기술 혁신은 기술로 시작해 자본으로 이뤄진다는 논리하에 혁신 스타트업의 자국시장 IPO를 통한 EXIT 생태계 구축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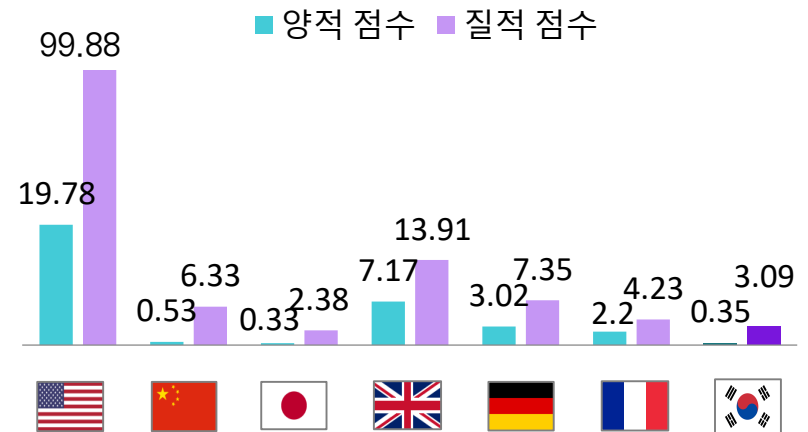
문제/이슈 4: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화 전략 및 체계적 지원 인프라 부재

관련 지표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



창업지원조직의 양적/질적 수준



현황 진단

☑ 지역 혁신환경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창업생태계 조성 정책으로 생태계 차별성 부족

- 중앙정부(중기부) 및 지자체 주도의 창업생태계 거점 조성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으나 아직 활성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 지역 창업생태계 별 독자적인 생태계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이 수립되지 않은 채 거점 조성 및 창업의 양적 성장에만 집중

☑ 지역의 낙후된 창업지원 조직 및 인프라로 인한 창업생태계 발전의 한계

-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자금, 공간, 컨설팅/멘토링, 보육, 교육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이 떨어짐
- 한국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 외 부산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역 창업생태계로서의 국내외 인지도가 높지 않음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4: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화 전략 및 체계적 지원 인프라 부재

사례 01 실리콘밸리 - 뉴욕 특화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 (USA)

☑ 뉴욕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산업구조의 다양성을 동시에 모색하여 뉴욕시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지역특화 창업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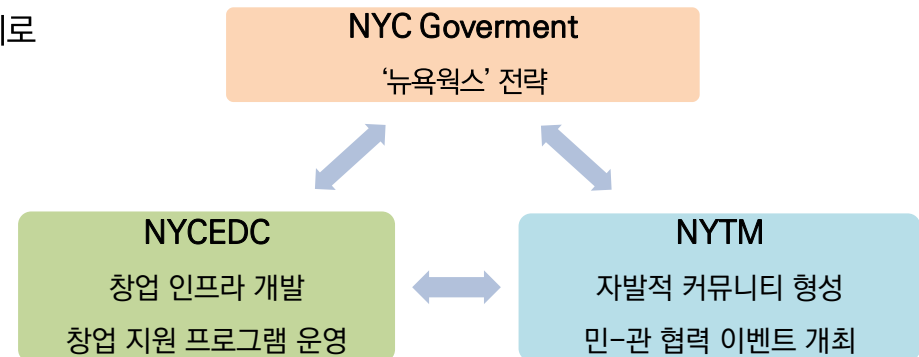
- Diverse City(2009): 2008년 금융위기 대응으로 바이오, 금융, 관광, 패션, 미디어 등 뉴욕시의 8대 강점 산업 중심의 기업진흥행동전략 마련
- Digital City Road Map(2011): 접근성(Access), 교육(Education),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참여(Engagement), 산업(Industry) 관점
- New York Works(2017): 중산층 일자리 창출 투자, 중산층 일자리 접근성 개선, 미래 일자리를 위한 준비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 전략
- 25대 이니셔티브 중 유니온 테크 허브(Union Square Tech Hub) 설립과 군용 시설(Brooklyn Navy Yard) 산업 단지 활용은 기술 및 제조업체 입주, 창업, 교육 및 교류를 촉진시키고, 도시형 기술 및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 뉴욕시정부, 뉴욕경제개발공사(NYCEDC), 뉴욕기업네트워크(NYTM) 간 상호 연계/협력 통한 창업생태계 시너지 창출

- 뉴욕시정부의 뉴욕웍스 전략과 NYCEDC의 창업 인프라 개발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결합
- NYCEDC는 뉴욕의 특성에 부합하는 신기술 산업(기술, 생명과학, 암호화폐, 보건, 사이버보안) 및 패션, 미디어, 식품 산업 분야의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NYTM은 4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창업기업 미트업 커뮤니티로 뉴욕시 주관 하에 디지털 뉴욕 계획(Digital NYC initiative)의 일환으로 NYCEDC와 IBM, Gust 등 민간과 협력하여 다양한 이벤트 개최

특징

- 지역의 강점 산업 기반 스타트업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
- 주정부의 정책적 개입 최소화: Entrepreneur of the self
- NYC-NYCEDC-NYTM의 상호 연계협력 기반 생태계 구축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4: 지역 창업생태계의 특성화 전략 및 체계적 지원 인프라 부재

사례 02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형성 전략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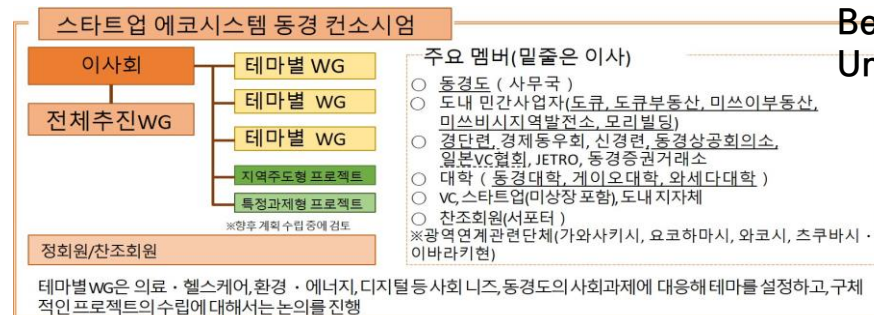
일본형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거점 도시 형성·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2019.6)

- 글로벌 거점도시(4곳): 도쿄, 오사카·교토·효고·코베, 중부 일본(하마마츠, 아이치·나고야), 후쿠오카
- 추진 거점도시(4곳): 삿포로·홋카이도, 센다이, 히로시마, 기타큐슈

7대 추진전략

1. 글로벌 스타트업 거점도시 구축
2. 대학 중심의 에코시스템 강화
3. 세계적 수준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4. 기술개발형 스타트업의 GAP Fund 촉진
5. 정부/지자체 스타트업 챌린지 추진
6. 에코시스템의 네트워크 형성의 강화
7. R&D 인재의 유동화 촉진

거점 도시 내 대기업, 스타트업, 대학연구개발법인, 지자체, 경제단체, VC, 액셀러레이터 등 모든 구성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Beyond Limits.
Unlock Our Potential

시사점

지역 혁신환경 및 산업특성 등의 강점·특화 요인에 기반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혁신·산업·경제 생태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간 주도의 자생적 창업생태계 발전 방안 마련

다양한 혁신주체의 광범위한 참여기반 지역 창업생태계 거버넌스 조성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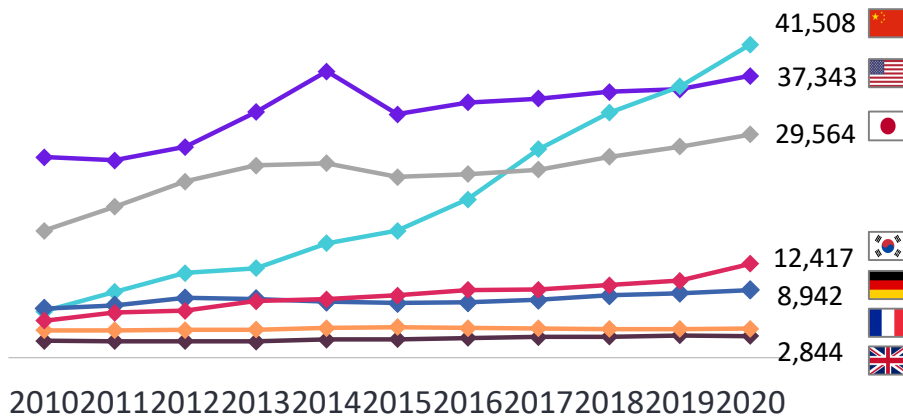
-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 주도의 일방적 지역 창업거점 조성 방식이 아닌 혁신주체와 수요기반 참여형 창업생태계 조성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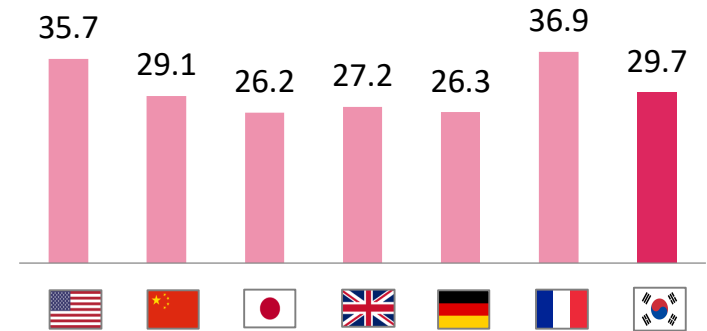
문제/이슈 5: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부재

관련 지표

4차 산업혁명 관련 PCT 특허 수



혁신형 창업 비중



현황 진단

☑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은 활발하나 국가 차원의 신기술·신산업 혁신경쟁력 강화 정책과의 연계성 부족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역량 자체는 우수한 편이나, 해당 기술의 사업화 경쟁력은 낮은 편
- 디지털 뉴딜 등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신기술·신산업 혁신 정책에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의 기회와 역할에 대한 비전 부재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특성에 따른 체계적 정책 지원 프로그램 부재

-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양적 규모는 증대되고 있으나, 기업의 성장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부족
- 기술 기반 혁신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중장기적인 육성 전략 및 계획 부재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5: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부재

사례 01 신지젠(新基建, 신형 인프라) 정책 (China)

☑ 데이터 경제와 산업 업그레이드를 목적으로 하는 신형 인프라 정책, 신지젠(新基建) (2018~)

- 기존의 오프라인 인프라(철도, 도로, 항공, 고속철 등) 기반 공급사슬을 신형 인프라 중심의 새로운 공급사슬로 변모함으로써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와 신기술 창업/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달성
- 코로나 19 이후 경제부양을 위한 양적완화의 조치로 대규모 디지털 인프라 투자 목적의 신지젠 정책이 본격 시동(34조 위안, 6천조원 규모)
-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는 신지젠을 정보, 융합, 혁신인프라라는 3개 분야로 규정하고(2020.4),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산업 인터넷, 특고압, 도시 간 고속철과 궤도교통의 7대 산업사슬로 구분

☑ 신지젠 참여 기업 현황 및 특성

- 500여개의 참여기업은 크게 1) 종합기업(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 등), 2) 업계 대표기업(레노버, 징둥팡 등), 3) 고성장 신기업(닝더스파이, 커따쑤페이 등)으로 구분됨
- 2020 중국 신지젠 창업역량 Top100 기업
 - 인공지능/빅데이터 32개, 클라우드 서비스 28개, 로봇 7개, 사물인터넷 7개, 자율주행업체 6개사 등
 - 베이징(47개), 상하이(17개), 선전(10개) 등
 - 시리즈 C 34개, 시리즈 B 28개, 시리즈 A 19개, 시리즈 D 19개, 시리즈 E~Pre IPO 4개



중국 Supply Chain의 형성과정과 신지젠 정책(펑루이캐피탈 리펑(李丰)대표 작성)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5: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신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전략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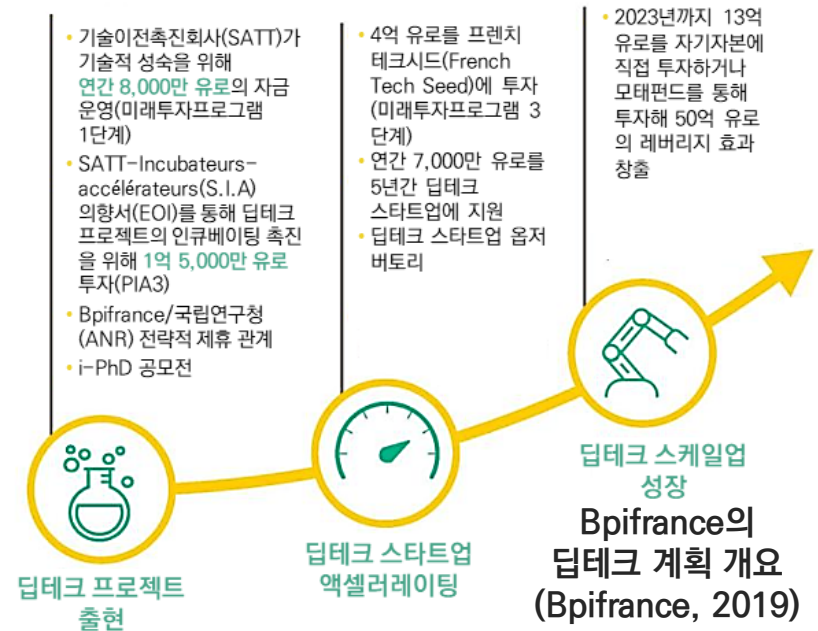
사례 02 Bbifrance의 딥테크 투자지원 계획 (France)

☑ Bpifrance 딥테크 계획(2019~)의 특징

- French Tech Seed Fund 조성(2018)을 통해 시작된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프로젝트-엑셀러레이팅-스케일업의 성장단계별로 체계화
- 2019~23년 동안 2천개 이상의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해 13억 유로의 직·간접 투자를 통해 약 50억 유로에 달하는 레버리지 효과 달성 목표

Bpifrance의 딥테크 프로젝트 선별 기준

- 연구실(공공/민간) 프로젝트 또는 과학계(과학/핵심기술)와 강한 연관관계가 있는 팀/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젝트
- 기술적 장애요소를 없애기 힘들어 진입장벽이 높은 프로젝트
- 경쟁에서 강한 차별성을 나타내는 프로젝트
- 장기간 소요되고 복잡적이며 자본집약적인 상업화 전략이 특징인 프로젝트



시사점



☑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선도국가 전환을 위한 핵심 기술혁신 정책과 창업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 창업기업에 대한 단순 자금지원보다는 국가 차원의 명확한 기술혁신 비전과 목표에 기반한 체계적인 혁신기업 육성 필요

☑ 유망 딥테크 분야 창업기업의 죽음의 계곡 극복과 기술혁신 선도성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 수립

-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혁신잠재력이 높은 기업 중심으로 지원 확대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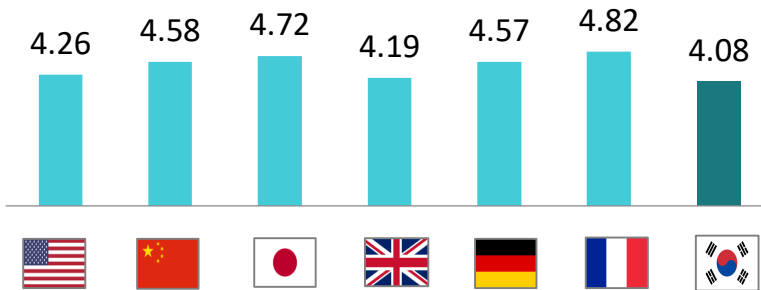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6: 공공기술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과 산-학 협력 체계 미비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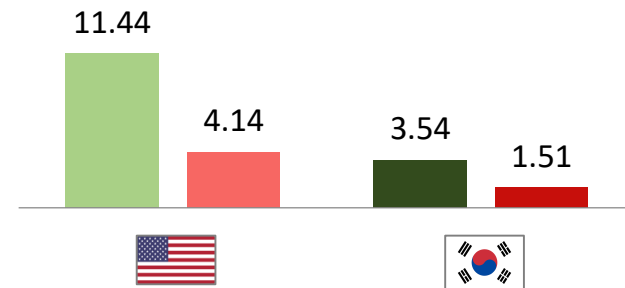
공공기술 사업화 수준(정성진단)

7점 척도 기준 점수



기술이전 창업률 및 효율성

■ 기술이전 창업률(%) ■ 기술이전 효율성(%)



현황 진단

☑ 산학협력에서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소극적인 역할과 공공기술 기반 벤처 창업생태계의 부진

- 수요기반 혁신 및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산학협력에서의 주도적 역할 필요
- 특히 대학발 벤처 창출 및 성장을 위한 대학, 대기업, 벤처캐피탈, 대학발 벤처 간 인재, 자금, 지식 등의 선순환 구조 필요

☑ 연구 부문과 비즈니스 부문을 연계하는 지역 차원의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 및 전문기관 역할 미흡

- 국내 지역단위의 기업지원 기관들 상당수가 공급(연구)-수요(비즈니스) 간의 연계보다는 기업 지원 서비스 제공에 초점
- 공공 부문의 지역 기업지원 기관들의 명확한 기업혁신 지원의 비전과 목표가 부재하여 기능 중복의 문제 발생

III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6: 공공기술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과 산-학 협력 체계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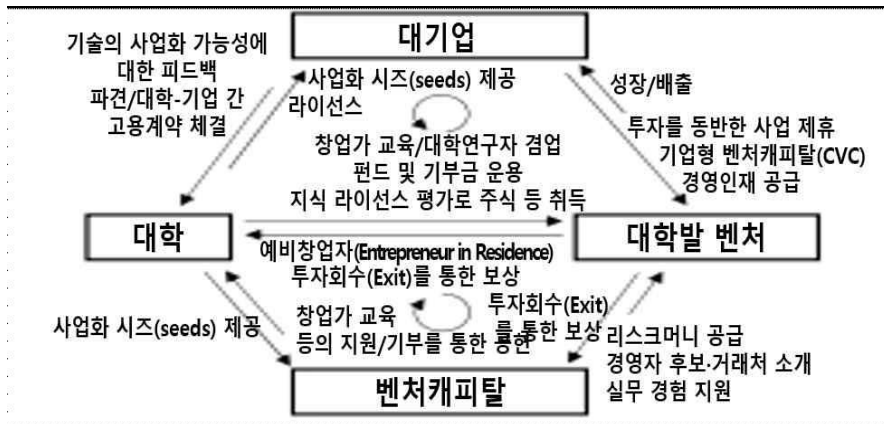
사례 01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대학발 벤처 생태계 활성화 (Japan)

☑ 산학협력의 거점으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대학 중심 인재, 자금, 지식의 선순환 구조의 대학발 창업생태계 활성화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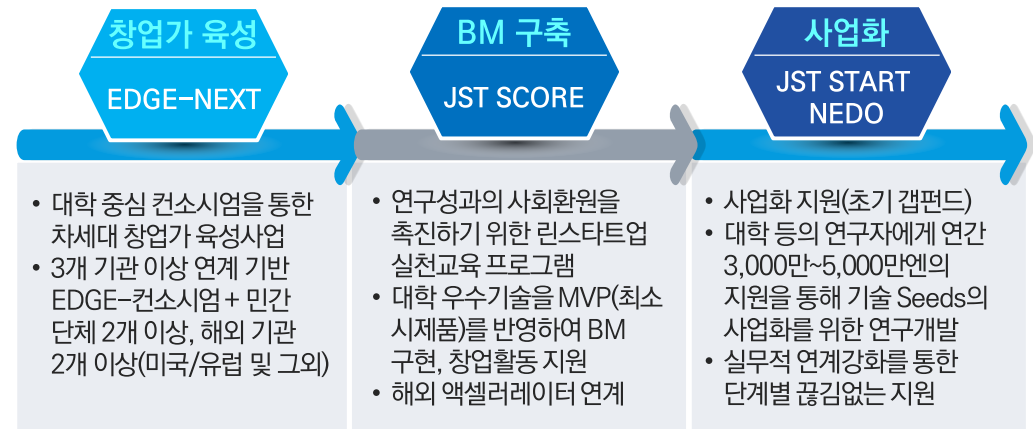
- 일본은 Society 5.0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을 꾀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산학협력을 집중적으로 지원
- 대학, 대기업, 벤처캐피탈, 대학발 벤처 간 인재, 자금, 지식재산·지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 창업가 교육, 연구성과 사업화, 대학-기업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대학발 벤처생태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차세대 창업가 육성사업(EDGE-NEXT)’, ‘사회환원가속프로그램(SCORE)’, ‘크로스 어포인트먼트 제도’* 등 운영
- * 연구자는 대학, 기업 등 복수의 기관에 정직원으로서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기관별 근무비율에 따라 임금 지급



대학발 벤처 창출 및 성장을 위한 에코시스템 모델(경제산업성, 2018)



일본의 대학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6: 공공기술의 낮은 사업화 성공률과 산-학 협력 체계 미비

사례 02 지역기업의 혁신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Catapult Centre (UK)

☑ Innovate UK는 기업혁신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9개의 기술분야별 캐터펄트 센터(Catapult Centre)를 운영(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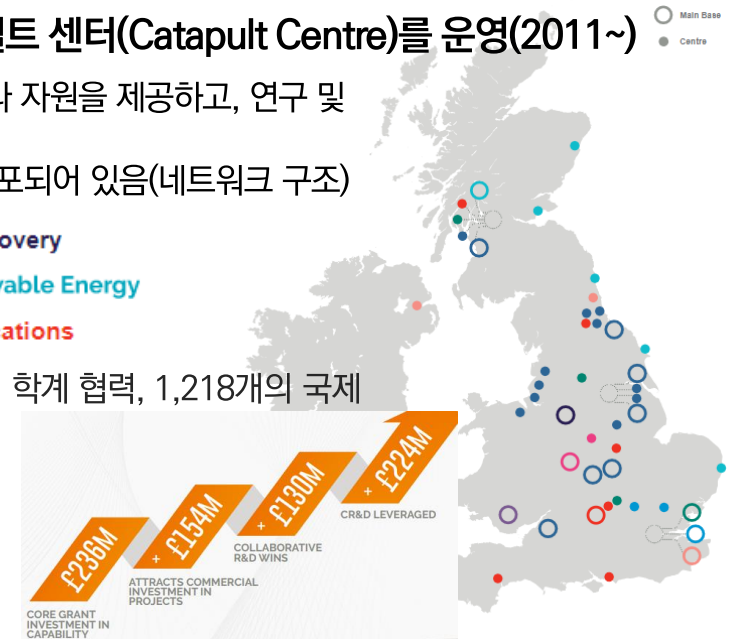
- 캐터펄트 센터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문 기술 역량, 장비, 기타 자원을 제공하고, 연구 및 학계와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
- Digital 등 9대 기술분야(아래)별 Main Base와 지역별 Centre를 포함 40여 곳에 분포되어 있음(네트워크 구조)

Cell and Gene Therapy	Digital	Medicines Discovery
Connected Places	Energy Systems	Offshore Renewable Energy
Compound Semiconductor Applications	High Value Manufacturing	Satellite Applications

- 2020년 기준, 8,332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14,750건의 산업 협력, 5,108건의 학계 협력, 1,218개의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

특징

- 공공자금+계약연구+협력 R&D 중심의 민간 협력적 펀딩 구조
- 높은 자본집약성, 엄격한 안전성, 개발 위험성, 낮은 단기 수익성의 특성을 가진 기술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전문기술+장비+자원 제공



시사점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창업 생태계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 공급 중심의 소극적 역할이 아닌 기술창업 활성화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 지역특화 첨단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혁신 지원조직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지역 기업지원 기관들의 기업혁신 지원의 차별성 확보 및 기술혁신 관점에서의 지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조직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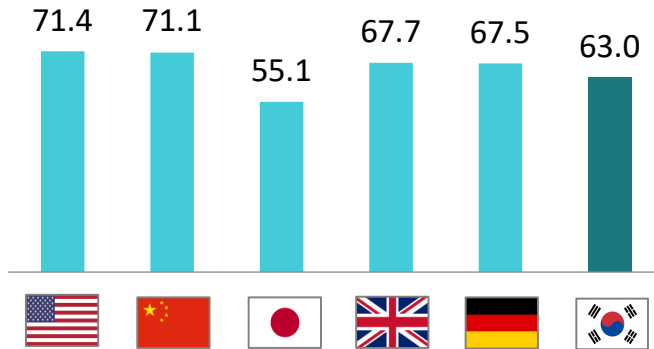
III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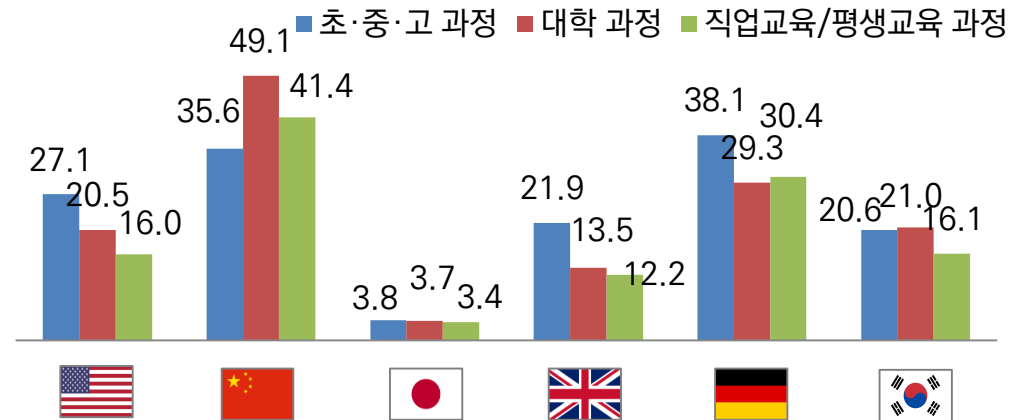
문제/이슈 7: 기업가정신 함양 및 우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미비

관련 지표

기업가정신 수준



기업가정신/창업 교육 경험률



현황 진단

☑ 생애주기별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에의 접근성 및 체계성 부족

- 창업활동 및 의향에 비해 낮은 기업가정신 수준(창조성/혁신성, 도전정신, 리더십, 기치지향 등)
- 대학에서의 창업교육 뿐 아니라 학령기(초중고) 및 직업/평생 교육 관점에서의 창업교육의 활성화 필요

☑ 수요/실전 중심이 아닌 공급/이론 중심의 대학 창업 교육의 한계

- 국내 대학의 창업 교육 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 의한 단순 이론 강의 중심의 공급에 머무름
- 대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및 경쟁력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 부재로 지역사회의 창업생태계 기여 역할에 한계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7: 기업가정신 함양 및 우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미비



사례

01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의 접근성 및 보편성 확대 (USA)

☑ K-12(유치원~고등학교), 대학, 민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

- K-12 단계에서는 창의성, 도전정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리서치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경험적 교육기회를 제공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갖춘 미래의 혁신창업가를 양성
- 거의 모든 경영대학에서 기업가정신/창업 관련 (부)전공 및 커리큘럼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창업교육을 실시하며, 경험과 실무에 초점
- 대학의 창업지원 센터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창업생태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K-12	STEM	민간	대학
경험적 교육/실용적 교육 Experiential Learning : Learning by Doing	STEM Literacy 역량 강화 STEM 교육을 통한 혁신인재 양성	다양한 기관을 통해 K-12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STEM 무료 교육 제공	경영대학 중심의 전공/커리큘럼 창업지원 센터의 창업허브 기능 지역사회-주정부-연방 지원 연계
•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 • 스타트업 창업자들과의 만남 • 학생들의 기업방문을 통한 교육 • 지역사회에 있는 비즈니스를 이용한 비즈니스 지도 만들어보기 • 창업분야 및 직업에 대한 토론 • 1일사업 실행해 보기(에이드 팔기) • 창업/기업가정신 커뮤니티 구성하기 • 학부모 기업인 그룹 구성하기	• STEM을 활용한 진전된 혁신 및 기업가정신 교육 • 커뮤니티를 통합하는 STEM 생태계 • 교육자-기업인 파트너십을 통한 업무기반 학습과 훈련의 증가 • 컴퓨터적 사고를 모든 교육의 융합된 요소로 만들기 • 교수와 학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확대	• Starter High(The Brain Hamilton Foundation): 10대 대상 청년기업가 사례 교육(온라인) • Cisco의 글로벌 문제 해결사 • Microsoft의 Minecraft 교육 • VentureLab의 집에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 Tinkergarten의 기업가정신 스킬을 키우기 위한 야외활동 프로그램...	• Entrepreneurship Major • Entrepreneurship Center • Internship in Startup • Entrepreneur-In-Residence • Entrepreneurship Club • Mentor Group • Business Idea, Business Plan • Seed Funds • Summer Accelerator Program...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7: 기업가정신 함양 및 우수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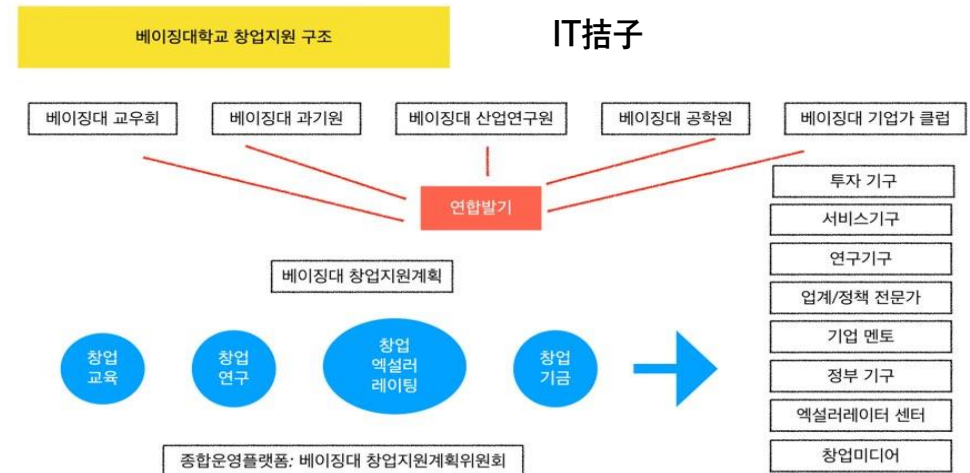
사례 02 | 신경제 분야 창업자의 요람 - 대학 (China)

☑ 중국의 주요 대학 창업자 배출 현황 및 특징

- 중국의 신경제 분야 창업자 중 칭화대-베이징대-교통대-저장대 순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

☑ 사례: 베이징대학교의 창업생태계 지원

- 바이두(百度)의 리엔홍(李彦宏),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리우칭(柳青)이 베이징대 동문
- 2012년 '베이징대 혁신창업육성계획'을 발표하고 '창업교육연구 액셀러레이팅 펀드'를 만들어 청년 창업을 지원
- 베이징대 창투기금(北大创投基金), 1898 창업엔젤기금(1898 创新天使基金) 운영
- 평루이자본(峰瑞资本)의 리펑(李峰), 쥘리엔자본(君联资本)의 리우얼하이(刘二海), 유명엔젤투자자 리샤오라이(李笑来)



시사점



☑ 일반 대중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접근성 및 보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기업가정신 및 창업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 접근성 및 프로그램의 질 보장

☑ 대학의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서의 기능 강화 및 동문 성공창업가의 재창업·재투자를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 대학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체계성·전략성 강화와 함께 동문 창업가의 대학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의 기여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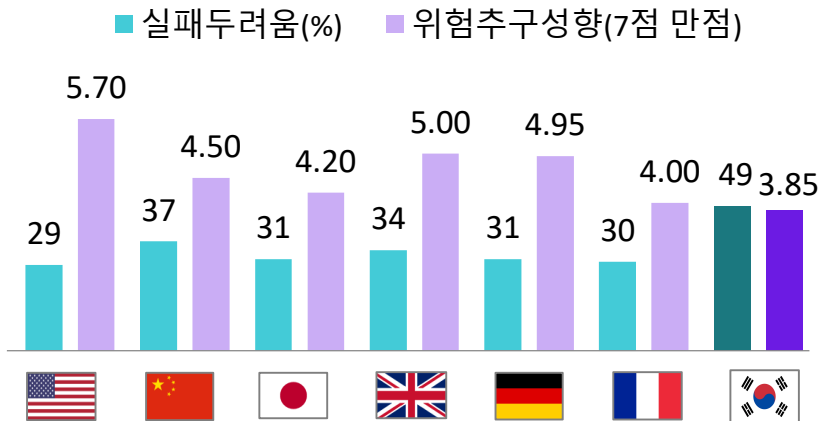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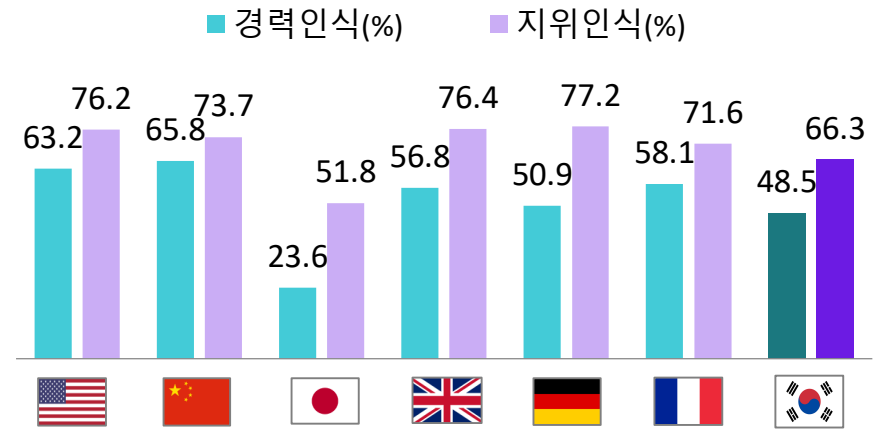
문제/이슈 8: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 안전망 부족

관련 지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및 위험추구



창업(가)에 대한 경력 및 지위 인식



현황 진단

☑ 창업 활성화 정책 및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 부재에 따른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전

- 창업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규모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창업과정에서의 생계 지원 대책 부족
- 실패 시 낙인효과, 사회복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부족 등 재기 지원 생태계 미비

☑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문화 조성 노력 부족으로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 한계

- 기업가정신 및 창업문화 조성,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창업정책의 철학 및 비전 설정 필요
- 누구나 창업을 자신의 경력경로로 선택하고 성공 창업가로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8: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 안전망 부족

사례 01 공세적 창업전략(Gründungsoffensive) 및 창업보조금 제도 (Germany)

Gründungsoffensive

☑ 독일 정부는 사회 전반의 기업가정신 감소 대응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공세적 창업전략 수립·발표(2018.11)

- 주요 기술 및 노하우 대물림,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창업 집중 지원 전략 필요에 대응
- 기업가정신 및 창업 분위기를 고취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독일사용자협회(BDA), 독일산업연합회(BDI), 독일상공회의소(DIHK) 및 독일수공업중앙회(ZDH)의 공동선언문)

☑ ‘창업정신 강화, 기업가 역량 전수, 재도전 문화 확립’을 10대 지원분야 중 1순위로 선정

- 학교에서의 기업가정신 육성과 함께 창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이벤트 프로그램 개최, 창업주간 운영, 재기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
- 한편 기업 승계를 광의의 기업가정신 내로 포함시킴으로써 창업에 준하는 사회적 인정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공세적 창업전략의 10대 지원분야

창업기반 개선	국제협력 지원
여성창업 장려	이민자 기업가 역량 강화
맞춤 자금수단 제공	창업정신 강화, 기업가역량 전수, 재도전 문화 확립
벤처캐피탈 증진	기업 승계 촉진
스타트업-중소기업 연계	사회적 기업 지원 확대

연방 및 지역차원의
학교-산업계 연계 이니셔티브 개발
대학 벤처창업 촉진(EXIST 프로그램 확대-Potential)
재기 지원
(기업 노하우지원 프로그램)
‘창업주간’ 파트너십 강화
소통창구 및 연방 차원 경진대회 확대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8: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 안전망 부족



사례

01

공세적 창업전략(Gründungsoffensive) 및 창업보조금 제도 (Germany)

창업보조금 제도

☑ 창업단계에서의 생계 지원에 대한 법 규정 및 보조금 지급

- 독일 사회법 3권(Drit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I)은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생계지원을 규정
 - 초기 6개월간은 기존의 실업급여에 월 300유로를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 지속 조건 하에 9개월까지 연장 가능
- 독일 사회법 2권(Zweites Buch Sozialgesetzbuch SGB II)도 초기 창업단계에서의 생계지원을 규정
 - 창업자는 장기기초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 외에 재기지원금(Einstiegsgeld, 50%)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 장기기초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설비구입비에 대한 보조금(최대 5,000유로)과 대출 가능

☑ EXIST(대학 내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창업보조금 제도

- 창업 아이디어를 진전시키는 기간에 학력에 따라 월 800~2,000유로를 최고 12개월간 지원
- 1인 창업자는 10,000유로, 팀 창업자는 17,000유로에 상당하는 장비 지원 가능
- 5,000유로의 교육비와 함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100유로의 양육비 추가 지원 가능

시사점



☑ 국가 차원의 기업가정신 및 창업(가/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 필요

-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뿐 아니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창업문화 조성

☑ 창업활동 자체에 대한 지원과 함께 창업활동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에 대한 균형 지원 필요

- 초기 창업과정에서의 생계 유지 비용, 창업활동에 필요한 설비 비용, 창업 실패 시 재기 비용 등의 사회 안전망 체계 구축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8: 창업(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사회 안전망 부족

사례 02 소기업의 권한을 확대한 연방 파산법 (USA)

☑ (입법 배경) 소기업(채무자)에 현재의 회생절차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

-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율하는 회생절차는 채무의 규모나 내용이 단순한 소기업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
- 이에 소기업의 회생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미국 「연방 파산법」의 제11장에 소기업에 대한 절을 신설하는 「소기업회생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이 2019년 8월 23일 제정되었고, 2020년 2월 19일부터 시행

☑ (주요 내용) 소기업(채무자)의 권한 확대

- 소기업 채무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기업에 대한 지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 단독으로 회생계획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소기업 채무자의 권한을 확대
- 소기업 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위원회의 임명을 폐지하고 관련 행정경비의 지불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채무자의 비용과 절차진행의 부담 감소
- 단, 소기업 회생절차의 공정성 확보 및 채권자 보호를 위해 공적 관리인을 임명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함

시사점



☑ 소기업의 회생절차 상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되는 요소에 대한 과감한 완화 정책 도입

- 국내 간이회생절차제도도 소기업 중심의 회생계획과 변제노력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창업(기업) 실패에 대한 낙인효과 감소와 관용의 문화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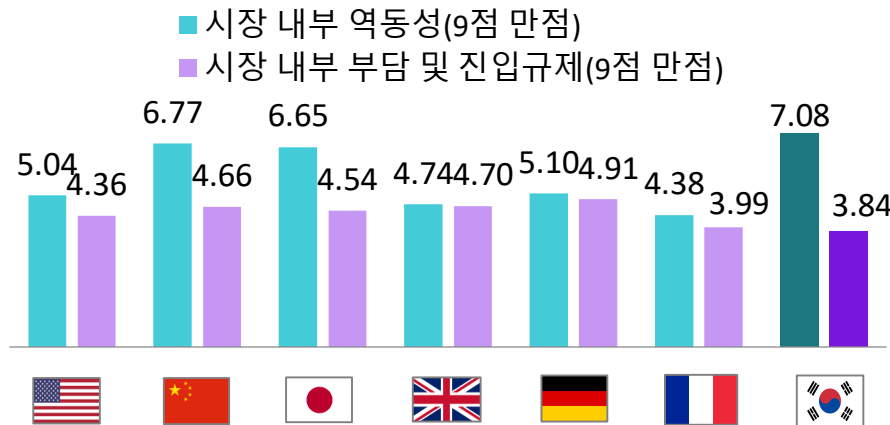
- 창업 및 기업 운영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빠른 회생을 통해 재창업 및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9: 창업·사업활동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 및 진입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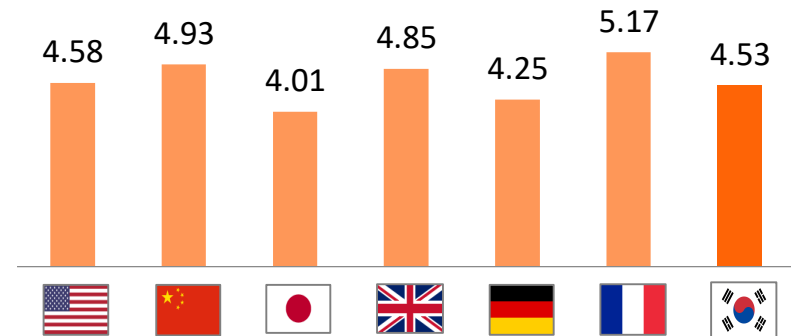
관련 지표

시장의 내부 역동성 및 진입규제 수준



세금 및 관료주의 수준

7점 만점(정성평가)



현황 진단

☑ 창업활동 자체의 행정부담은 줄어들었으나, (예비)창업자가 느끼는 창업활동에 대한 규제 및 부담은 높음

- Doing Business Index의 Starting a Business 지수(7개국 중 1위)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시작에 필요한 행정부담은 낮음
- 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및 사업 규제, 산업 내 기존 기업의 경쟁환경 및 진입장벽, 공무원의 규제개선 노력 부족 등이 문제

☑ 누구나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 및 인프라의 접근성 및 보편성 부족으로 창업활동의 격차 발생

- 창업활동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하나, 여성, 지역, 세대 등 창업활동의 접근성 및 성과 차원의 소외 계층이 존재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의 접근성 및 보편성 부족(특히 지역)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9: 창업·사업활동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 및 진입장벽



사례

01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핀테크 분야 혁신과 창업 활성화 (UK)

✓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혁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영국의 금융 규제 당국인 금융감독원(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는 2016년 핀테크 분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
- FCA는 프로젝트 혁신(Project Innovate, 2014) 등 혁신기술 솔루션의 평가 및 통제된 모니터링과 관련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추진
- 금융 분야는 소비자와 투자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분야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도입을 위해 기존 규제가 전면 완화될 경우, 피해의 발생 여부와 범위 산정하기 어렵고 미치는 영향 역시 판단하기 어려워 규제 샌드박스 도입
-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스타트업들은 총 1억 3,500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이 중 80%가 현재까지 운영 지속

✓ FCA의 규제 샌드박스는 5단계에 걸친 실행단계가 존재하며, 특히 샌드박스 종료 후 법 개정 및 사후관리(4~5단계)가 특징

- 서류신청 - 심사 및 승인 - 시장 출시 - 종료(법령정비) - 사후관리의 5단계에 걸친 실행단계로 구성
- 4단계 법령정비
 - 영국도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이지는 않으나,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규칙에 의한 규제(rule-based approach)와는 달리 원칙에 의한 규제(principle-based approach)를 적용하므로 FCA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운영
- 5단계 사후 관리 단계
 - FCA는 Case officer를 통해 샌드박스 참여 종료 후 인허가 획득 전략 수립, 규제 이정표(signpost) 제시 등 규제 준수를 위한 기업컨설팅 지원
 - 글로벌핀테크이노베이션네트워크(GFIN), Global Sandbox 등을 운영하여 타국가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실증의 장 제공



영국 FCA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5단계 실행 절차(최해옥, 2021)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9: 창업·사업활동에 대한 높은 규제 수준 및 진입장벽

사례 02 Zero Barriers Movement (USA)

☑ Kauffman Foundation은 2017년 기업가정신 보고서를 통해 ‘Zero Barriers to Startup’을 주창

- 특히 창업생태계 성장의 수혜와 사업활동의 기회 접근성에서 인종 혹은 타 인구통계학적 그룹, 사회경제학적, 지리적 그룹 간 격차를 발생시키는 실질적 장애물을 찾고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
- 현상1: 미국의 창업가 중 80.2%가 백인, 64.5%가 남성
- 현상2: 도시화 현상으로 시골 지역의 창업활동 비중이 1980년대 20%대에서 2017년 현재 12.2%로 감소

☑ 미국은 창업을 위한 Zero Barriers를 지향하면서 연방-주 정부, 대학 및 민간을 포함한 지역사회가 긴밀하게 협력

- 창업하고자 하는 모든 미국인이 연령, 인종, 성별, 교육적 배경 등과 상관없이 창업에 필요한 지식, 기술, 지원 등을 본인이 속한 지역사회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건강한 창업생태계 형성
- 지역사회는 연방정책을 수행하는 SBA와 SBDC, 주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 및 지역사회 창업지원 기관과 제도*가 융합과 연계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행되고 있음

* Innovation Centers, Women’s Business Center, Incubators and Accelerators, 대학 Entrepreneurship Centers, VC/Angel Association, Regional Business Idea Pitch Competition, Alumni & Entrepreneurs Group for Young Entrepreneurs...

시사점



☑ 신기술·신산업 분야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

- 일시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넘어, 법제도 개선 및 인허가 획득, 시장진입을 위한 컨설팅 등 신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노력

☑ 창업활동 및 생태계 접근에 대한 불편성 향상 및 창업을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애물 제거를 위한 노력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창업을 꿈꾸면 실현가능한 불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창업문화 형성 필요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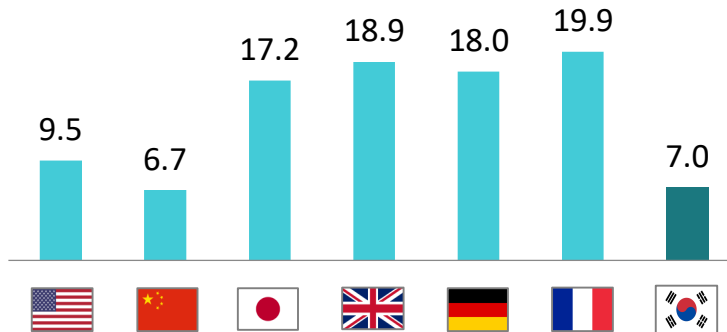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0: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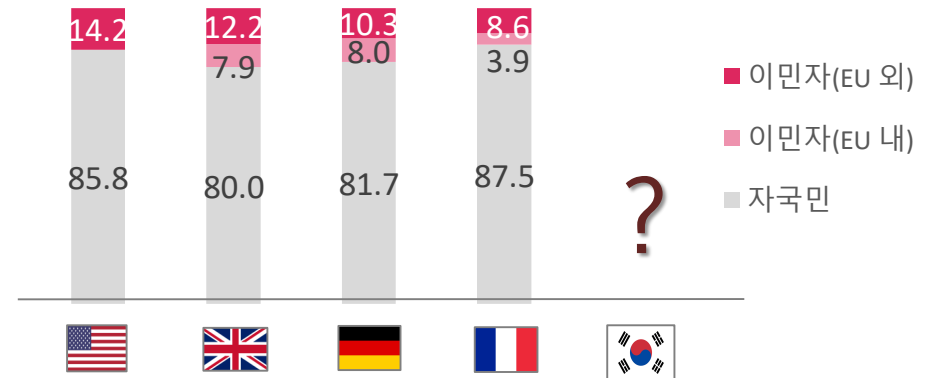
관련 지표

해외시장 진출 기업 비중

매출의 25%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업 비중(%)



개인사업자 중 외국인/이민자 비중



현황 진단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및 본글로벌 창업(Outbound)의 부진과 체계적인 글로벌화 지원 프로그램 미비

- 지리적/언어 차원의 한계, 시장 정보의 부재, 사업모델 혁신성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성과 미흡
- 정부 창업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 중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극히 일부

☑ 외국인, 이민자 등 우수 해외인재의 국내 창업(Inbound) 지원 정책 미흡

- 국내 외국인 및 이민자의 수는 급속도로 늘고 있으나 이들의 국내 창업활동에 대한 현황 파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 및 이민자 등을 위한 창업 비자 프로그램, 외국인 창업 전용지원 자금 등의 정책지원이 부족하고 인지도도 낮은 편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0: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화 수준

사례 01 La French Tech의 글로벌 창업허브 전략 (France)

☑ 태생부터 글로벌화를 지향해 온 La French Tech(2013~)

- (목적) 국내시장 대상 창업정책의 실효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투자자 및 인재유치를 통한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 (브랜딩) 프랑스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국제적 가시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프렌치테크를 브랜드화하는데 노력
- (조직) 프렌치테크 전담팀인 프렌치테크단(Mission French Tech) 구성 시 경제재정부의 기업총국 및 재무총국, 투자위원회와 외교부가 참여

☑ 'La French Tech의 창업생태계 글로벌화 관련 프로그램

- French Tech Visa: 해외 창업인재 4년거주 허가 취득을 위한 신속절차
 -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Passport Talent의 일환으로 실행
 - 창업자의 경우 요청 후 1주일 전후로 비자 서류 발급
 -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배우자에게도 일할 권리 제공
 - 혁신기업 창업자 뿐 아니라 혁신기업 직원, 스타트업 투자자도 지원 가능
- French Tech Ticket: 해외 스타트업 프랑스 유치 지원 프로그램
 - 선정된 50개 프로젝트에게는 팀원 당 2만 5000유로 상금과 함께 영주권 획득을 위한 신속 절차, BPI France를 통한 투자,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제공
 - 2019년 경우 100개 넘는 국가에서 총 지원 프로젝트 1,372개
- French Tech Community: 글로벌 허브 구축 전략
 - 자국 내 13개의 French Tech Capital과 함께 45개의 국내, 63개의 해외 French Tech Community가 거대한 글로벌 생태계 네트워크로 연결됨
 - 국가별 자생적으로 운영 책임자 모임(board)을 구성하여 FT Central이 승인 (추천 기준: 창업자, 프랑스인/불어사용자, 여성 각 50% 이상)



Global Network of French Tech Communities
(La French Tech 홈페이지)



한국 창업생태계 10대 문제인식과 해외 벤치마킹 시사점

문제/이슈 10: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낮은 글로벌화 수준

사례 02 이민자 창업 지원 정책 (Germany)

☑ 독일 이민자 기업가정신 정책은 독일 사회로의 통합과 노동시장 통합의 관점에서 시행

- 외국인전문자격인정법(Anerkennungsgesetz), 숙련이민법(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은 독일의 해외 전문 인력 유입 뿐만 아니라 이민자의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데 기여
- 이민자 기업가정신 증진을 위해 1) 이민자 기업가정신의 가시성 제고, 2) 자영업과 종속근로(dependent work)에 대한 평등한 인식 확산, 3) 디지털 자문과 같은 디지털 지원 인프라 구축, 4) 자금 접근성 개선, 5) 정책 수단 및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노력

☑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다양한 이민자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연방정부: 연방노동사회부(BMAS)의 IQ 네트워크 ‘이민자기업가정신역량센터’,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라인-마인 지역의 ‘여성난민창업(Frauenmit Fluchterfahrung gründen)’ 시범사업,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지방커뮤니티이민경제(MIGOEK)’ 프로그램
- 지방정부: 베를린의 ‘여성 이민 자영업자 이니셔티브(I.S.I. e.V.)’ 베를린시 경제에너지기업부(SenWiEnBe) & SINGA 비즈니스랩의 ‘Berlin Newcomer Startup Award’
- 민간차원: 난민의 기업가정신 지원 국제네트워크인 SINGA Germany

시사점



☑ 창업기업 차원의 글로벌화를 넘어 창업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개방성 및 다양성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Outbound) 뿐 아니라 우수 창업인재 및 자원의 국내 창업생태계 유입(Inbound)을 고려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등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창업지원 정책 수립 필요

- 국내 외국인 창업현황 및 창업애로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기반으로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

4.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한국 창업생태계 부문별 벤치마킹 시사점 종합

기업가/창업

- 창업의 대중성 및 보편성 향상 (인종/세대/지역 등 격차/장애물 해소)
- 창업 지원 인프라의 접근성 확대
- 창업역량 진단 통한 기회/혁신창업 유도

기업

- 창업기업의 경제산업 발전기여도 향상 (성장잠재력 및 파급효과 중심 선별 지원)
- 스케일업 집중-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 대기업/선도기업 투자보육(CVC)

자금

- 성장단계별 투자생태계 전문성 강화 (VC 위험투자/메가투자 확대, 엔젤/AC/CF 등 대체금융 시장 성숙)
- M&A 중심의 투자회수(EXIT) 시장

지원조직/인프라

- 자생적/참여형 지역창업생태계 조성
- 생태계 민관, 주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 민간 창업지원 전문조직 경쟁·육성

기술/지식

- 미래 창업유망 기술분야별 전문화/전략화된 창업생태계 육성방안
- 대학의 지역 혁신창업 전략 기지화
- 대학/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지원 고도화

교육/인력

- 생애주기별 창업 교육체계 구축 (전연령에 걸친 창업교육 접근성 향상)
- 실전 중심의 창업교육의 질 개선
- 기술인재/개발자의 창업기업 유입 촉진

문화/인식

- 창업초기 보조금 및 생계지원 강화
- 창업실패, 재도전 등 사회적인식 개선
- 성공창업가의 생태계 기여(선순환 구조)

정책/규제

- 창업정책 브랜딩 및 거버넌스 구축
- 신기술·신산업 규제해소 및 규제예측
- 문제해결-사회가치 창출 스타트업 육성
- 기술혁신/취약계층 중심 공공조달 정책

글로벌화

- 글로벌 선도/플랫폼 기업 육성전략
- 창업비자 등 해외인재유치 제도개선
- 외국인 벤처투자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가치있는 창업
(Valuable Startup)

(국가/지역)경제선도

기술
선도

전략성
선도성

사회
선도

일상의 창업
(Startup in Life)

창업국가
(Startup Nation)

성장하는 창업
(Startup with Growth)

보편성
접근성

대표성/당위성

효율성
지속가능성

(예비) 창업가 저변 확대

관심청년층
(엘리트 중심)

지역
외국인
장년
여성

창업 프로세스
로의 진입

경쟁/도태/재탄생/회복
(역량 우수기업 중심의 성장)



IV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정책과제
01

일상의 창업
Startup in Life

▶▶ 창업!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보편성/접근성)

핵심목적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가 창업준비 과정 및 창업활동에 동등한 기회를 갖기

☑ (창업준비/교육) 생애주기별 기업가정신/창업 교육의 접근성 및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실전 중심의 창업교육의 질 향상

- 대학 재학생 대상 공급 중심의 커리큘럼 교육이 아닌 생애 전 주기 지역민-창업희망자 대상 수요 중심의 보편적 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
- 이론형 창업 교육에서 벗어나 창업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실무형 교육에 집중하며, 창업기업에서의 인턴십 등 창업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 구직 중이거나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교육을 통해 새로운 경력경로로서의 창업 선택의 기회를 제공

☑ (보편성) 창업활동(창업자)의 보편성 및 다양성 확대 – 창업활동에 있어서의 격차 해소 및 특화 지원

- 여성창업 활성화/특화지원생태계 고도화(창업허브, 액셀러레이팅, 자금 등)
- 장년층 창업지원 강화, 장년층 인생2막 창업도전 및 인력 활용성 강화
- 지역기반 창업활동 및 지원생태계 발전 방안 마련(수도권 생태계와 격차↓)
- 외국인, 탈북자, 사회 소외계층의 창업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창업비자 및 인재유치 전략)

☑ (접근성) 창업지원 관련 물리적·사업지원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

- 민-관 협업을 통한 지역 밀착형 창업 허브 조성(정부 정책-민간 프로그램 간 조화, 생태계 주요 참여주체 간 협업 프로그램 운영)
-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소규모·고효율의 창업허브 공간 확대
- 대중의 창업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시설(예: 주민센터 등)의 창업허브화

IV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정책과제
02

성장하는 창업
With Growth

▶▶ 창업! 될성부른 나무 키우기 (효율성/지속가능성)

핵심목적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간/시장 주도의 지원생태계 구축하기

☑ (민간주도-전문성) 민간 주도의 성장 중심 단계별 전문 창업지원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

- 정부 주도의 과제(예산) 중심 지원이 아닌 대기업-선도기업 등 민간의 전문화된 창업지원 조직이 투자보육 개념으로 자원을 투입하여 창업기업의 성장과정 전체를 컨설팅 및 멘토링하는 민간 주도의 창업 전문 지원생태계 구축
- 민간 창업지원 전문기관의 육성 및 지원 확대(단, 현재의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와 같이 역량없는 지원조직의 정책자금 의존을 막고 경쟁체제 확립)
- 스케일업 전담 육성기관 및 지역 스케일업 전담지원 센터 등을 도입하고, 성장기회 탐색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 지원

☑ (자금시장) 성장단계별 투자생태계 전문성 및 다양성 확대와 함께 M&A 활성화를 통한 투자회수(EXIT) 성공률 향상

- VC의 모태펀드 자금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투자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경쟁체제 도입, 펀드 존속기간 확대, 리딩딜 전환, 성과보수 비중 확대 등)
- 엔젤투자자와 함께 P2P 금융, 크라우드펀딩 등 초기 창업기업 중심의 대체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및 세제혜택
- 액셀러레이터/인큐베이터의 등록제도의 평가체계 등 개선을 통한 양질의 투자보육 프로그램 제공 유도
- 투자회수 시장의 M&A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 및 선도기업의 CVC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완화

☑ (글로벌화) 창업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의 Outbound 정책과 함께 해외 우수 창업인재 유치를 위한 Inbound 정책 병행

- (Outbound)유니콘기업 육성보다는 유망 기술·사업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및 플랫폼기업 육성으로의 성공사례 창출 전략의 수정
- (Outbound)창업기업의 단순 해외 진출지원보다는 글로벌 혁신 프로젝트의 협력관계 속에서 새로운 스타트업의 시장기회를 도모하는 해외 혁신창업 거점 활용 전략 마련(K-Startup Center 등의 운영 고도화)
- (Inbound)창업생태계 내 투자 및 보육 조직, 기술개발자 및 경영인력, 기타 지원 서비스 조직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및 대외 개방성 확대

IV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정책과제
03

가치있는 창업
V. Startup

▶▶ 창업!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전략성/선도성)

핵심목적

국가, 지역, 산업,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업을 많이 만들고 키우기

☑ (기술선도) 신기술 및 신산업 창업 활성화 및 국가 기술선도 전략 연계

-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저탄소·친환경 분야의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 디지털뉴딜, 탄소중립2050 등 국가 핵심 기술 아젠다와 창업정책과의 연계
-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기술혁신 로드맵 하에서의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 수립
- 대학의 혁신창업 전략 기지화 및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지원 고도화(연구자 직접창업 활성화 및 사업화 전담조직 강화)

☑ (경제선도) 고용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정책

- 국가 경제발전에의 기여도 향상을 위한 고성장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대한 성장지원 확대
- 지역 특화산업 및 핵심 성장동력 산업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성장지원 확대
- 지역 창업생태계 내 혁신주체의 자생적-참여형 생태계 관련 주요 의사결정 프로세스 확립
- 특화 산업 및 기술역량을 가진 도시 간 광범위한 신산업·신기술 융합이 가능한 초광역형 혁신(창업)생태계 조성

☑ (사회선도) 문제해결-사회가치창출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인류 및 시민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빅챌린지(Big Challenge) 창업’ 지원
- 소셜벤처 및 사회적기업의 영세성 극복 및 사업모델 경쟁력 강화 지원
- 국민 복리를 위한 디지털 정부 프로젝트 등에서의 데이터 기반 공공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IV

결론: 미래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향 제시

정책과제
04

창업국가
Startup Nation

▶▶ 창업! 국가 대표 브랜드 만들기 (대표성/당위성)

핵심목적

국가 창업정책 브랜드 및 거버넌스 구축과 고유의 혁신문화 조성하기

☑ (브랜딩) 한국의 창업정책의 철학과 목표 설정 및 브랜딩 전략 마련

- 국가 창업정책의 철학을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하위 정책 간의 정합성 확보
- 영국의 Tech Nation, 핀란드의 Business Finland, 프랑스의 La French Tech와 같은 한국 국가 공식 창업정책 브랜드 개발
- 신기술·신산업 분야 창업활동, 고성장 스케일업 기업, 글로벌 선도기업 및 유니콘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문제해결형 기업 등의 양적 성장 및 질적 성장(매출/고용 창출, 혁신역량) 등 핵심 지표에 대한 목표 설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거버넌스) 범부처 차원의 창업정책 총괄 기구(컨트론타워) 구축 및 창업지원 체계 통합·일원화

- 창업정책의 국가 경제사회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청와대, 혹은 범부처 상위 조직 주도의 창업정책 총괄 역할을 강화
- 타 국가 사례와 같이, 범부처 성격을 띄는 부처 외 신규 조직으로 구축하되, 부처 공무원 외, 민간(산학연 전문가, 기업지원생태계 전문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혁신주체의 참여 기반 프로젝트 형태의 조직 구성도 고려
- 창업정책 총괄 기구의 설립 취지에 맞추어 창업정책의 체계를 통합·일원화하고, 창업생태계 현황지표 및 성과목표를 수립, 체계적으로 관리

☑ (창업문화) 성공 창업가의 창업생태계 선순환 기여 촉진과 실패에 대한 안전망 제공을 통한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창업초기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직접 창업지원 외, 창업보조금 등 생계유지를 위한 간접 지원 확대
- 창업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특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경제활동 복귀 및 창업생태계 간접참여와 같은 재기 지원 강화
- 성공 창업가의 창업기업 운영 노하우 및 투자회수 자금의 생태계 재투자를 위한 연쇄창업 및 투자보육 활동 참여 촉진(세제혜택 및 지원사업)



www.asan-nanum.org